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881-01





국립국어원 2021-01-3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881-01

# 분야별 공공용어 정비

연구 책임자  
이준환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분야별 공공용어 정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1년 7월 7일 ~ 2022년 1월 3일

2021년 12월 21일

연구 책임자: 이준환(전남대학교)

연구 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KOR 컨소시엄 국어국문학과)

연구 책임자: 이준환(전남대학교)

공동 연구원: 조재형(전남대학교), 백승주(전남대학교), 조경순(전남대학교),  
유하라(성균관대학교), 임태운(남부대학교), 최지영(전남대학교),  
이수진(전남대학교), 최 윤(강원대학교)

연구 보조원: 최옥정(전남대학교), 김다솔(전남대학교), 강은진(전남대학교),  
이유미(전남대학교), 고상미(전남대학교), 김신혜(전남대학교),  
하현정(전남대학교), 이지성(전남대학교), 오지수(전남대학교),  
미즈카이 유카리(전남대학교)



## 【요약문】

□ 사업명: 분야별 공공용어 정비

□ 사업 목표: 그간 구축되어 이용되어 온 공공용어 자료를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언중들의 공공용어의 접근과 이해에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여 용어 사용에 어려움을 제거함.

□ 과업 수행 내용

① 기구축 자료에서 정비 대상 용어 선별, 정비 지침 보완

② 용어 정비: 표제어, 원어, 분야(국가과학기술체계),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어

③ 분야별 감수: 전문 분야 감수, 원어 정보 감수, 국어·사전적 감수

④ 종합 검토 실시로 미시 구조 내의 정보의 일관성과 균질화를 추구

□ 용어 정비 지침: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해 준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 자체로 마련한 지침을 보조적으로 사용

□ 정비 과업 실시 내용

① 정비 용어의 개수: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에서 321개, 『주택금융용어집』에서 183개,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에서 630개,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에서 1,866개, 『한국 문화재 용어』에서 2,821개, 『무역 보험 용어집』에서 2,056개,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에서 3,213개를 선별하여 모두 11,000여 개를 대상 용어로 선정하고 이 중 10,222개를 최종적으로 정비함.

② 표제어 정비: 한글로 표기를 하고 규범에 맞는 것만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비규범 표기가 널리 쓰이는 경우, 만약 규범 표기가 있다면 규범 표기로 제시하고 비규범 표기는 관련어로 제시하는 식으로 처리하였음.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경계를 표시하였음.

③ 원어 정비: 표제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원어 정보 칸을 비워두고, 한자어인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처리에 부합하도록 하며 한자를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음.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

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를 하되,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표시함. 취음자는 고유어로 처리를 하였고, 외래어의 경우 음상을 기준으로 원어를 판정하였음.

- ④ 정의문 정비: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고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는 식으로 정비함.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상한다.”는 기본 지침에 따라 “~A. 또는 B.”와 같이 뜻풀이가 된 것들을 분리하여 제시함.

- ⑤ 분야 분류: 용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함.

- ⑥ 사용 예시 제시: 인터넷, 정부 보도 자료, 보고서, 학술 논문, 학술 서적 등의 검색을 통하여 사용 예시를 확보하여 제시함. 표제어의 의미와 품사 정보에 걸맞은 사용 예를 찾아서 예시로 제시함. 사용 예시의 구축 비율은 88.72퍼센트에 달함.

- ⑦ 관련어 구축: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지를 드러내었음.

#### □ 감수 실시 내용

- ① 전문 분야 전문가: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 전문가 11명에게 감수를 의뢰하여 내용 검토를 받고 검토 결과를 정비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② 어원 전문가: 영어 및 인구어 전문가 1명, 한자 및 일본어 전문가 1명에게 감수를 의뢰하여 표제어, 정의문 및 사용 예시 속의 원어 정보 검토를 받고 오류 사항을 보완하였음.
- ③ 국어 및 국어사전 전문가: 국어 및 국어사전 전문가 2명에게 미시 구조에 제시된 내용 중 국어 표현 면에서의 적절성, 사전 정보로서의 적절성 등을 감수받고 오류 사항을 보완하였음.

## □ 차 례 □

<b>1. 정비 사업 개요 .....</b>	<b>1</b>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
1.1.1. 정비 목적 .....	1
1.1.2. 정비 필요성 .....	2
1.2. 정비 범위 .....	3
1.3. 정비 방법 .....	5
<b>2. 정비 대상 용어 선정 및 정비 지침 .....</b>	<b>7</b>
2.1. 용어 선정 .....	7
2.1.1. 정비 대상 용어집의 실태 .....	7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	12
2.2.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	14
2.2.1. 국립국어원 제공 정비 지침 .....	14
2.2.2. 연구진 자체 보완 정비 지침 .....	18
<b>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b>	<b>27</b>
3.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정비 지침 보완 .....	27
3.2. 용어 배분 .....	28
3.3. 용어 집필 .....	30
3.4. 용어 검토 및 보완 .....	32
3.5. 감수 및 보완 .....	33
3.5.1. 전문 분야 전문가 .....	33
3.5.2. 어원 관련 전문가 .....	35
3.5.3. 국어 및 사전 전문가 .....	35
<b>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b>	<b>37</b>
4.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	37
4.2. 표제어 및 어원 정비 .....	40
4.3. 전문 분야 분류 .....	47
4.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	50
4.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	60
4.6. 관련어 구축 .....	63
<b>5. 결론 .....</b>	<b>67</b>

## 표 차례

<표 1> 정비 대상 기 구축 자료의 정보 제시 실태 .....	7
<표 2> 전문 용어 분류 체계(국가 과학 기술 체계 : 『우리말샘』 체계) .....	12
<표 3>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	14
<표 4> 전문 분야 및 분과별 감수 관련 정보 .....	33
<표 5> 원어 관련 감수 정보 .....	35
<표 6> 국어 및 사전 관련 감수 정보 .....	35
<표 7> 정비 완료 분야별 표제어 항목 수 .....	37
<표 8> 전문 분야별 정비 항목 수 .....	38
<표 9> 분과별 검토 완료 항목의 사용 예시 구축 현황 .....	40
<표 10> “~A. 또는 B.” 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	51

## 그림 차례

[그림 1] 지적 용어해설집_지구과학_에이치에이(HA) .....	26
[그림 2] 무역 보험 용어집_경제경영_확장 담보 .....	26
[그림 3] 공공용어 정비 사업 연구 보조원 작업 배분표 .....	28
[그림 4] 분과 사용자 관리 화면(분과원) .....	29
[그림 5] 연구 보조원 배분 후 작업 대상 확인 .....	29
[그림 6] 공공용어 정비사업 공동 연구원 작업배분표 .....	30
[그림 7] 감수 요청용 파일의 예시 .....	34

# 1. 정비 사업 개요

##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1.1. 정비 목적

이 연구는 그간 각 기관별로 여러 분야에 걸쳐 만들어 이용해 온 공공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언중들의 공공용어의 접근과 이해에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여 공공용어 사용에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로써 공공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용어가 적절히 유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정비 대상으로 제시한 『무역 보험 용어집』의 모든 용어,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의 모든 용어, 『한국 문화재 용어』의 모든 용어, 『주택금융용어집』의 모든 용어,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의 모든 용어, 『지적 및 공간정보 용어해설집』의 모든 용어,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에 실린 용어 중 19,965개를 정비 대상 후보로 삼는다. 이 가운데 언중들의 언어생활과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뽑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에 따라 ‘표제어’, ‘원어’, ‘정의문’, ‘사용 예시’, ‘전문 분야’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고, 각 부분의 정보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 보완하도록 한다.

정비 작업은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http://termwork.korean.go.kr>)에서 수행한다. 이곳에서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정보를 모두 누락없이 온전히 갖추어진 형태의 정비 결과를 표제어를 기준으로 10,000개 이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각 표제어에 정의문에 걸맞은 쓰임을 보이는 사용 예시를 최대한 찾아 제시함으로써 용어에 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공공용어 정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언중들은 이전과는 달리 균질한 형태의 공공용어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공공용어 이용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으로써 무엇보다도 공공용어가 그 명칭에 걸맞게 공적인 성

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 1.1.2. 정비 필요성

이와 같은 정비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반어에 비해 어려운 전문 용어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공용어를 다듬어서 언중의 언어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요즘 사회는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통신망에서 온갖 내용과 정보들이 널리 공유되는 소통의 시대이자 지식의 시대이다. 그런데 이처럼 통신망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주제와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된 성격을 지닌다. 이에 언중이 접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비롯한 용어의 사용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처럼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상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그런 점에서 여러 세계를 알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언중들에게 적지 않다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주택 및 토지와 관련한 용어들은 제대로 알고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주거 및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문 용어 중에는 전문 용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언중들 다수가 같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공공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무척 많아진 것이다.

공공용어란 공공 언어로서 사용되는 용어라 이해되는데 이에겐 일반어와 전문 용어가 모두 포함된다. 이 중 전문 용어는 일반어와 비교할 때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공공 언어로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언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전문 분야 종사자, 국어 분야 종사자 등이 손을 맞잡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언중과 쉽게 접하는 공공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언어의 공공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과업처럼 학술적으로만 쓰이는



전문 용어와는 달리 언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공공 언어로서의 전문 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정비 및 보완을 함으로써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야 한국어 언중들이 정보의 불균형을 겪지 않고 공공 부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 전체에 공공용어가 효과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말이 소통의 도구로서 제 구실을 하는 데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국제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통의 도구로서 우리말이 제 구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전문적인 정보가 넘나들고 이와 관련되는 지식이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겠다.

## 1.2. 정비 범위

위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진에서 수행할 과업의 연구 범위와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하여 볼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포털 내 기 구축 용어 중 국어원에서 제시한 용어 대상 정비

- ①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11,786개), 『한국 문화재 용어』(2,823개),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1,866개), 『무역 보험 용어집』(2,056개),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630개),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621개), 『주택금융용어집』(183개)를 대상으로 정비 수행
- ② 국립국어원에서 결과물로 요구하는 1만 항목을 넘어서는 개수의 용어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결과물을 제출

### (2) 공공용어 관련 필수 항목의 일관성 및 균질화를 지향한 정비 및 보완

- 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 및 보완 실시
- ② 표제어, 원어, 전문 분야 정보, 정의문, 사용 예시의 수정 및 누락 정보 추가
- ③ 전문 분야 내용 전문가, 영어 및 한자어 등 원어 전문가, 국어 및 사전 전문가에 의한

검토 및 보완

④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용어 정비 및 보완

(3)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용어의 정비

- ①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단계별 정비 실시 및 정비 작업의 관리
- ② 표제어, 원어, 분야 정보, 정의문, 사용 예시로 나누어 검토와 보완 실시
- ③ 각 부문 과업 참여자들의 검토와 집필의 교차 실시를 통한 정비 및 보완

(4) 전문 분야 내용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수 실시 및 결과 반영

- ① 전문 분야 내용 전문가에 의한 표제어, 원어, 전문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의 검토와 수록 정보의 적절성 및 정확성 확인
- ② 영어 및 한자어 전문가에 의한 원어 정보 표기 등의 정확성 확인
- ③ 국어 및 사전 전문가에 의한 정비 결과물의 적절성 및 균질성 판단
- ④ 전문가의 검토 결과 및 조언의 취지를 정확히 살려 연구진 내에서 적절히 수정

(5) 공공용어의 성격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 여부 판단

- ① 언중이 폭넓게 공유하고 사용하는 공공용어의 성격에 걸맞게 대중성을 갖도록 정비 및 보완
- ② 공공 언어의 관점에서 용어 난이도의 적정성 판단
- ③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공공용어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및 보완

(6) 『우리말샘』의 용어 처리를 충분히 염두에 둔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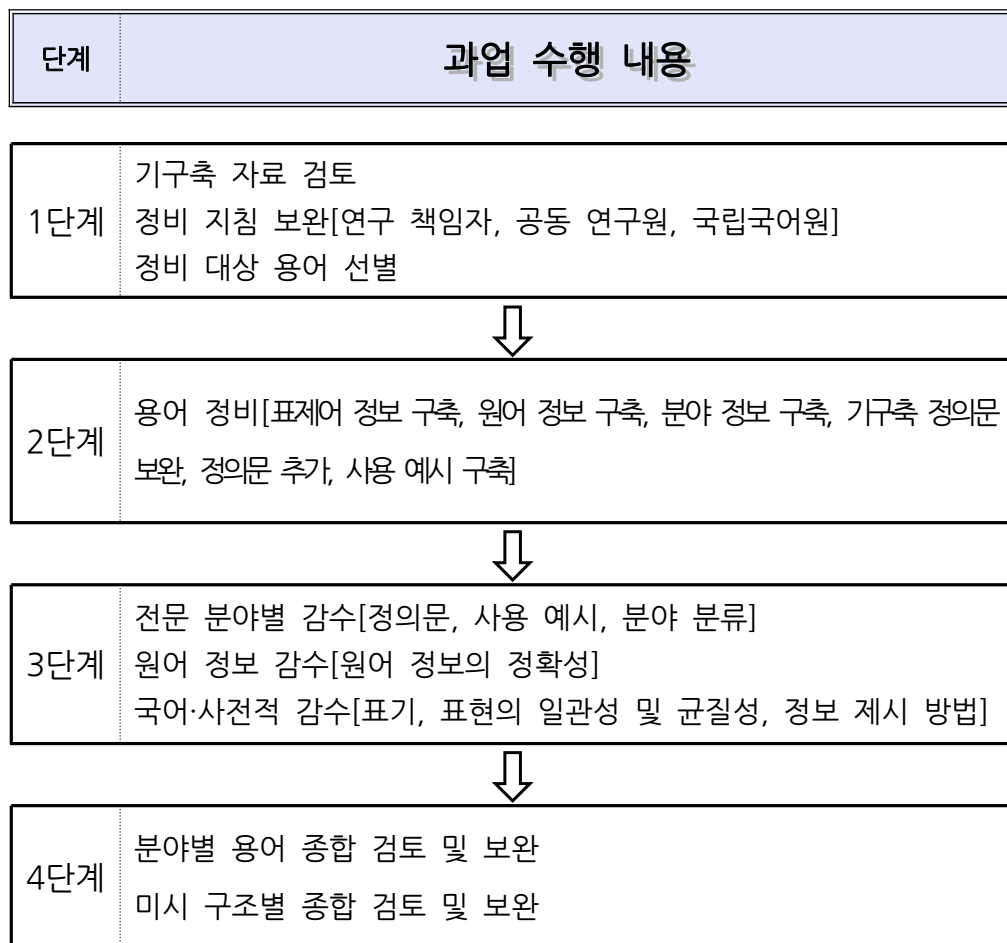
- ① 『우리말샘』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되는 정보 및 정보 제시 방식의 차이를 확인해 가며 정비 대상 용어에 관한 정보 제시
- ② 『우리말샘』의 뜻풀이 방식을 적극 참고하여 정의문의 형식, 메타언어의 사용 등에 주의를 기울여 정비

(7) <공공용어 정비 지침>의 수정 및 보완, 보고서에 탑재하여 제출

- 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을 검토하여 언어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후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수정 후 정비 실시
- ② 정비 과정에서 지침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파악되면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
- ③ 정비 작업을 통하여 축적된 정비 지침의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은 잘 정리하여 결과 보고서 내에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에 전달

### 1.3. 정비 방법

본 연구진에서는 분야별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작업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업을 진행하여 완수한다.



공공데이터포털 내 기구축 용어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정비 대상 범위에 있는 용어 가운데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한 후 정비를 수행한다. 정비를 하는 데에는 용어 관련 필수 항목의 일관성 및 균질화를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표제어, 원어, 분야 정보, 정의문, 사용 예시의 수정과 누락 정보를 추가하고 기구축 항목의 내용, 표기 표현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실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비한 결과물은 전문 분야 내용 전문가, 원어 전문가, 국어 및 사전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여 3단계에 걸친 감수로 검증을 거친다. 이를 통하여 용어의 의미와 분야, 표제어의 표기, 어원, 사용 예시, 관련어가 제시되는 틀이 정확하고 일관되는지를 살피고 그 내용이 적절하고 정확한지를 검증한다. 그런 후 필요한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 2. 정비 대상 용어 선정 및 정비 지침

### 2.1. 용어 선정

#### 2.1.1. 정비 대상 용어집의 실태

국립국어원에서 정비 대상으로 제시한 기구축 용어집, 용어 해설집, 용어 사전에 실린 용어들의 정보 제시 실태를 살펴보니 <표 1>과 같은 상황을 보였다. 이에서 금방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용어의 미시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균질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표 1> 정비 대상 기 구축 자료의 정보 제시 실태

정보 내용 자료명	표제어 표기	분야 정보	원어 정보 (한자 등)	정의문	사용 예시
주택금융용어집 (183개 항목)	한글/일부 로마자	미제시	일부만 제시	제시(내용이 간단) 문장/단어	상당히 제시
한국 문화재 용어 (2,823개 항목)	한글	미제시	대부분 제시	대개 제시 문장/단어 (단어 제시 경우는 문장 정의 필요)	미제시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 (1,866개 항목)	한글/아라비 아 숫자/로마자 (101개)	미제시	상당히 제시	제시 문장/단어	미제시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 (630개 항목)	한글/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미제시	미제시	상당량 제시 문장/단어	미제시
무역 보험 용어집 (2,056개 항목)	한글	미제시	대부분 제시	제시 문장	미제시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 (11,786개 항목)	한글/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미제시	상당히 제시	제시 온전한 문장/일부 단어	미제시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 (630개 항목)	한글	미제시	미제시	제시 문장	미제시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축 자료의 미시 구조의 양상이 균질하지 않으므로 각 자료가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과도한지를 잘 살펴서 각각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자료 검토를 통하여 파악한 미시 구조별로 실시할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표제어

- ①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표기: 한글 표기로 바꾸고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는 원어 정보 표시를 하는 영역에 반영한다.

예) ㄱ. AMS → 에이엠에스 ※ 원어: Access Method Services

ㄴ. T.P → 티피 ※ 원어: Transport Protocol

ㄷ. GPS time → 지피에스^타임 ※ 원어: Global Positioning System Time

ㄹ. 3차원 직각좌표 → 삼차원^직각^좌표

ㅁ. WGS 84 → 더블유지에스^팔십사/더블유지에스^팔사 ※ 원어: World Geodetic System

ㅂ. RS-232c → 아에스^이십이시/아에스^이백삼십이시 ※ 원어: Recommended Standard-232C

※ 이 경우 문장 부호 사용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겠으나 한글로 표기를 할 때에는 문장 부호를 쓰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어 정보를 표시할 때에는 ‘AMS’와 ‘T.P’의 차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을 찍는 문제, ‘WGS 84’와 ‘RS-232c’의 차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을 쓰는 문제가 정돈될 필요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부호의 사용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두루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언어 사용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②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ㄱ. 전문 용어는 주로 한자어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두음 법칙 및 속음 등과 관련하여 한자음의 표시가 맞춤법에 맞는지의 여부를 세심히 살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ㄴ.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는 어문 규정에 따라서 ‘^’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 ③ 외래어 표기법: 정비 대상 용어 가운데에는 외래어로 간주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바 이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적절히 표기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에는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용어의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된 바가 규범 표기, 비규범 표기, 미확정 표기, 기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예) ㄱ. 스타디아측량[stadia surveying tachymetry] → 스테이디어 측량

- ㄴ.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 → 토렌스식 등기법
- ㄷ. 방향데오도라이트[Direction theodolite] → 방향 세오돌라이트
- ㄹ. 햄머도법[Hammer projection Method] → 해머 도법

## 나. 한자 등 원어 정보

- ① 원어 정보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제시하도록 한다.

예) 키네마틱 측위[kinemtic positoning] → kinematic positoning

- ② 한자어계 어휘의 경우 한자가 표시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다른 언어와 섞이어 쓰이는 혼종어의 경우에는 한자 정보 누락의 정도가 크다. 제시되지 않은 자료는 국어사전, 전문 용어 사전 등을 찾아서 어원을 확인하고 확인한 바를 실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예) ‘국제피셔효과’는 원어 정보로 ‘國際fisher效果’가 제시되어야 하고, ‘무역클레임’은 원어 정보로 ‘貿易claim’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③ 한자어계 어휘 중 한자 사용에서 이체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 관계에 있는 다른 한자를 사용한다면 추가 단추를 눌러 해당되는 정보를 제시한다. 이때 일반적인 쓰임을 우선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자기: 瓷器(우선 제시)/磁器(추가 정보로 제시)

- ④ 영어계 어휘의 경우는 영어 원어를 제시하되, 본딤말과 줄임말이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이 둘을 나란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 ⑤ 일본어계 어휘의 경우 『우리말샘』에서 ‘쓰나미’의 어원을 ‘tsunami[津波]’와 같이 한 방식에 따라서 로마자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한자 표기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국립국어원 구축 자료의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일본어 독법을 지닌 어휘가 정의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이 표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성을 기하도록 한다.

- ⑥ 원어가 어떤 언어에서 유래한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실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한 후 결정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 다. 정의문

- ① 기 구축 자료에 백과사전적 정보가 실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제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언어적 정의를 먼저 내린 후에 백과사전적 정보를 뒤에 부연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 정의가 먼저 제시되고 난 후에 특수한 정의가 더해져서 용어의 다양한 쓰임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 건축선: 건축법이나 도로법 민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뜻한다. 즉 대지 소유 한계선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은 도로 기능에 따라 건축 한계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국도의 경우 접도제한이 양측에 20m 폭으로 설치하며 대지와 대지 사이는 90 cm이다.<한국

국토정보공사 지적 및 공간정보 용어 해설집>

→ 건축선: 건축법이나 도로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 이에 따르면 대지 소유 한계선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워야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건축 한계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도의 경우 접도 제한이 양측에 20m 폭으로 설정되며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우에는 90cm가 설정된다.

- ② 기구축 자료에 단어 또는 구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어 또는 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예) ㄱ. 한자어를 고유어로 제시: 계명점년 → 닭울음점/ 각루 → 물시계/ 고각 → 다락집

ㄴ. 고유어를 한자어로 제시: 가운데인방 → 중방/ 막새 → 와당

ㄷ. 외래어를 한자어 등으로 제시: S.L → Secant Length 외선장/ V.D → Vertical Distance 연직거리/ I.A → Intersection Angle 교각 또는 교차각

ㄹ. 표제어와 같은 단어로 제시: 계자각난간 → 계자각난간/ 가죽신 → 갓신

⇒ 이 가운데에 ㄷ의 경우는 현재의 표제어와는 별개로 정의문에 제시된 단어를 표제어로 올리는 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③ 정의문을 끝맺을 때에는 마침표(.)를 찍어 기술이 완결되었음을 표시한다.

- ④ 띄어쓰기 등 맞춤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 ⑤ 정의문 안에 쓰인 한자어, 외래어 등을 한글만으로 표기할 때 그 뜻을 알기 어렵다면 괄호 안에 원어 정보를 병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⑥ 외국어 정의문의 경우는 문장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오타자 여부, 띄어쓰기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 ⑦ 외국어 정의문의 경우 끝맺는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 보아야 한다.

- ⑧ 정의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용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을 두루 참고한다.

## 라. 사용 예시

- ① 사용 예시는 『주택금융용어집』에 실린 용어들의 상당수를 제외하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마저도 온전한 문장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온전한 문장을 제시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사용 예시는 해당 용어의 정의, 용도, 사용 범위 등과 관련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을 고르도록 노력한다. ‘지목 변경’과 관련한 아래의 세 가지 사용 예시 가운데에서는 ㄷ이 ‘지목 불일치’ 등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 ‘지목 변경’을 하는지를 생각하기 좋고 ‘지목 변경’은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사용 예시로서의 효용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ㄹ의 ‘자기’도 아래와 같은 예가 ‘자기’의 특성 및 이 종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그릇을 같이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예라 하겠다.

예) ㄱ. 지적 공부와 과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대



장과 비교 전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109필지의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하였다.

- ㄴ. 오는 8월 말까지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 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ㄷ.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애월읍 지역의 지목 불일치 토지 286필지에 대해 지적 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 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축락 처리하였다.
- ㄹ. 백자는 자기에 속하는 것으로 아주 고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백토를 사용해서 고온에서 구워내는 거조.

③ 사용 예시는 기본적으로는 문장 단위의 것을 제시하되 예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 단위 예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사용 예시를 보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언어 자원을 확보한다.

- ㄱ. 말뭉치 검색: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말뭉치 검색,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여러 말뭉치 검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현대 한국어 용례 검색기 등
- ㄴ. 전문 용어 사전: 정부24 행정전문용어사전,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등
- ㄷ. 구글 등의 인터넷을 통하여 기사 내지는 논문 검색
- ㄹ. 보도 자료, 각종 약관, 전시 해설서(『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에 명시)

⑤ 사용 예시가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등에서 추출된 경우에는 매체명과 더불어 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발행 연월일을 표시한다. 그리고 누리집(웹 사이트) 주소를 표시한다.

예) ㄱ. 지목<sup>^</sup>변경: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애월읍 지역의 지목 불일치 토지 286필지에 대해 지적 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 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축락 처리하였다.<서울뉴스통신>(2021. 5. 20.)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734>

ㄴ. 자기: 백자는 자기에 속하는 것으로 아주 고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백토를 사용해서 고온에서 구워 내는 거조.<와이티엔 사이언스>(2018. 3. 5.)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07&key=201803051312395436&page=3](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07&key=201803051312395436&page=3)

## 마. 용어의 분야

① 공공용어 가운데에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의미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야를 판단한 후 판단한 결과를 입력하도록 한다.

② 전문 분야의 판단은 용어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평강히 섬세한 일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수 결과를 충실히 참고하여 반영한다.

※ 문화재와 관련한 분류 체계를 살펴본다면 국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와 『우리말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데, 이 각각에서 중분류가 실제 용어의 분류 정보

에 해당한다.

<표 2> 전문 용어 분류 체계(국가 과학 기술 체계 : 『우리말샘』 체계)

국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		『우리말샘』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HA01 역사일반	인문	1	교육
	HA02 한국사		2	문학
	HA03 동양사		3	민속
	HA04 서양사		4	언어
	HA05 고고학		5	역사
	HA06 미술사		6	철학
	HA07 민속		7	인문 일반
	HA99 기타 역사/고고학			
	HE01 음악	예체능	51	체육
	HE02 미술		52	연기
	HE03 디자인일반		53	영상
	HE04 제품디자인		54	무용
	HE05 시각디자인		55	음악
	HE06 환경디자인		56	미술
	HE07 섬유디자인		57	복식
	HE08 의상디자인		58	공예
	HE09 연극		59	예체능
	HE10 영화			
	HE11 무용			
	HE12 체육인문사회			
	HE13 스포츠과학			
	HE14 콘텐츠			
	HE15 문화재			
	HE99 기타 문화/예술/체육			

##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기구축 자료집을 보면 하나의 단어나 이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된 경우가 꽤 있다. 이들은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 중 ‘감독관 교육’, ‘과락과목’, ‘연구개발본부’,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구에 해당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각 단어가 지닌

의미의 연결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각 단어에 관한 이해만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전문 분야를 판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번 과업의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가 없다.

이어서 『한국 문화재 용어』를 보면 ‘가얏고: (옛) → 가야금’, ‘갯웃: (옛) → 갯웃’ 등과 같이 옛말 정보가 두 개가 실려 있다. 또한 ‘가로말이: (북) → 두루말이’, ‘가죽띠엿치레걸이: (북) → 말띠드리개’ 등과 같이 북한어 정보 제시형의 91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옛말은 현대 국어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북한어는 현실적으로는 유통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남북한 간의 학문 교류 등을 감안하여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비 대상 어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에서는 경제에 관한 언중들의 관심에 부응할 필요성에서 무역 관련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환경 관련 용어는 굉장히 그 수요가 많아서 범위를 추리고 용어를 고르는 과정을 거쳐서 정비 대상 용어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환경에 관련도가 높은 것이 당장 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에 따라서 보건(의료), 환경, 화학, 물리, 지구과학, 전기/전자, 에너지 등의 용어를 선별하여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기구축 자료 중에는 정보 제시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이와 같은 용어를 우선적인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을 하였다.

이 이외의 용어집에 실려 있는 것들은 해당 용어들이 언중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큰 것들이고, 기구축 자료집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모두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비 대상 용어는 아래와 같이 11,000개 정도로 선정되었다.

〈표 3〉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기 구축 용어집명	→	정비 대상 용어 개수
①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621개 항목)	→	321개 항목
②	『주택금융용어집』(183개 항목)	→	183개 항목
③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630개 항목)	→	630개 항목
④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1,866개 항목)	→	1,866개 항목
⑤	『한국 문화재 용어』(2,823개 항목)	→	2,821개 항목
⑥	『무역 보험 용어집』(2,056개 항목)	→	2,056개 항목
⑦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11,786개 항목)	→	3,213개 항목
	누계		11,000여 개 항목

## 2.2.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 2.2.1. 국립국어원 제공 정비 지침

공공용어 정비 작업의 기준이 되는 지침은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기본 지침’과 ‘항목별 세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지침’은 이 정비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항목별 세부 지침’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내용이 따라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침의 주된 내용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I. 기본 지침

##### ① 공통 사항

-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상한다.
- 용어가 갖추어야 할 필수 항목은 분야, 원어, 정의문, 사용 예시이다.
- 용어의 각 항목은 기본적으로 어문 규범에 맞게 집필한다.
- 용어의 각 항목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정확히 기술한다.

## ② 신규 용어

- 용어 및 용어 정보는 구축 목적에 맞게 수집하여 집필한다.

## ③ 기구축 용어

- 각 항목의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 각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적절한 항목에 정보를 재배치한다.
- 정보가 누락된 항목은 다른 항목의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마련한다.

## Ⅱ. 항목별 세부 지침

### ① 분야

- 공공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전문 분야 분류 지침(공공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을 따른다.

### ② 대상 용어

- 대상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대상 용어가 외국 문자로 표기된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한글로 표기한다. 만약 원자료의 다른 항목에 대상 용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용어가 있다면 이를 ‘관련 용어>동의어’로 입력한다.
  - ② 대상 용어에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 등이 포함된 경우,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도 한글로 표기한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가 포함된 표기는 ‘참고 사항>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 ③ 대상 용어가 로마자로 된 약어인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 원자료의 대상 용어가 비규범 표기로 제시된 경우 규범 표기로 바꾸고, 비규범 표기나 관용 표기는 ‘참고 사항>검색용 이형태’에 입력한다.
- 규범 표기, 비규범 표기는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를 검색하여 판단한다.
- 대상 용어의 규범 표기가 미확정인 경우 만약 미확정 표기가 여럿이면, 어문 규범에 준한 표기를 ‘용어’ 칸에 입력하고 나머지 표기는 ‘참고 사항>검색용 이형태’에 입력한다.
- 대상 용어에 괄호를 사용한 경우 괄호 속 내용을 판단하여 적절히 정비한다.
  - ① 괄호 속 내용이 다른 항목의 정보에 해당하면 해당 항목에 배치한다.
  - ② 복수인 대상 용어를 괄호로 표기한 경우, 괄호 속 내용을 포함한 형태를 대상 용어로 삼고 나머지 형태는 ‘관련 용어>동의어’로 입력한다.
- 대상 용어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표제어를 기준으로 띄어 쓴다. ‘우리말샘’에 없는

외래 용어인 경우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이때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 기호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 용어로 보기 어려운 ‘절, 문장’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상 용어가 로마자 등 외국 문자만으로 표기된 경우, 개념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원자료의 다른 항목에 없다면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로 올리는 대상 용어인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용어가 있는지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대상 용어가 공공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용어와 형태, 개념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등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비 목적에 따라(다듬기, 표준화 등) 필요시 이미 등재된 용어와 형태, 개념이 모두 일치하는 용어도 등재할 수 있다.

### 3 원어

- 대상 용어가 한자어·외래어·혼종어인 경우에는 원어를 제시한다. 대상 용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어 정보 칸을 비워 둔다.
- 원어 정비 시 참고할 사전은 다음과 같다.

- **고유어, 한자어:**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 **영어:** 『롱맨 사전』, 『케임브리지 사전』, 『웹스터 사전』, 『옥스퍼드 사전』
  - **프랑스어** 『라루스 사전』
  - **독일어** 『두덴 사전』
  - **스페인어** 『스페인한림원 사전』

- 원어의 언어 종류를 선택하고 오른쪽 칸에 원어를 입력한다.
- ① 원어가 한자인 경우 한자끼리는 모두 붙여 쓴다. 한자 자형은 우리말샘 원어의 한자를 따르되, 둘 이상의 한자가 병기되는 경우 첫 번째 제시된 한자만 입력한다.  
예) 만기^후^이자 → 滿期後利子, 사립 → 沙淋(비고: 사림(沙淋/砂淋)<우리말샘>)
- ② 원어가 로마자인 경우, 소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원어가 고유 명사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 ③ 외래어 고유 명사는 원어의 종류를 ‘안 밝힘’으로 처리한다.  
예) Stockholm(안 밝힘) syndrome(영어)
- ④ 대상 용어가 두문자어(로마자)로 된 약어인 경우,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소괄호 안에 본말을 기재한다. 본말(줄어들지 않은 본래의 용어) 중 약어(머리글자만 따는 등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줄인 용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 ⑤ 원어가 일본어인 경우, 헤본식 표기 원칙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고, 한자가 있는 경우 그 뒤 ‘[ ]’ 안에 한국식 한자로 제시한다.
- ⑥ 원어가 중국어인 경우, 한어병음방안(漢語拼音方案)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고,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뒤 ‘[ ]’ 안에 한국식 한자로 제시한다. 성조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 ⑦ 원어가 혼종어인 경우, 각각의 언어 종류를 선택하고, 언어별로 원어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 원어로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역어는 대상 용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용어를 의미한다. 대역어는 대역어 항목에 입력하고, 해당 대역어의 약어가 있는 경우 ‘대역어>약어’에 입력한다.

#### 4 정의문

- 하나의 정의문은 하나의 개념만을 담도록 한다.
- 정의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정의문 등이 더 있을 경우 정의문 항목 우측에 있는 ‘+’ 표시로 항목을 추가하고, ‘-’ 표시로 항목을 삭제하여 정의문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 언어의 종류를 선택하고 정의문을 입력한다.
- 기구축된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대상 용어의 개념 정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한다.
- 기구축된 정의문이 없는 경우 정의문은 2어절 이상으로 마련한다. 이때 정의항을 기본으로 하되, 설명항을 덧붙일 수 있다.
  - ① 정의문 정비 시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기관·단체별 전문용어 사전(부처별 전문용어 사전), 온라인백과사전(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환경경제용어 사전 등), 위키피디아, 보도자료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사전을 참고한다.
  - ②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이외의 사전은 초안을 작성하는 용도로만 활용한다. 최종 정의문은 이 초안을 토대로 6어절 이상이 연속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 ③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직접 입력’이 아닌 출처를 선택하면 빈칸이 생성되는데 그 빈칸에 출처의 상세 정보(자료명, 쪽수, 날짜 등)를 입력한다.
- 정의문 안에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가 포함될 경우 괄호 안에 원어 정보를 병기할 수 있다.

#### 5 사용 예시

- 사용 예시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작성한다.
- 기구축된 사용 예시가 없는 경우 대상 용어와 관련된 기관의 누리집 등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사용 예시를 인용한 후 출처를 밝힌다.
  - ① 대상 용어와 관련된 기관의 누리집에서 사용 예시를 찾을 수 없다면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 또는 공신력이 있는 주요 매체의 자료를 활용한다.

- ② 사용 예시에 인명, 회사명, 지역명 등 고유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O(영문 대문자)’로 바꾸어 익명 처리 한다.
- ③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쓴다. 제시 순서는 다음의 예를 참고 하되, 각 자료의 특성에 맞게 제시한다.
- 사용 예시는 문장 단위로 입력하며, 사용 예시 속 대상 용어는 ‘대상 용어’ 항목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 사용 예시를 입력할 때 대상 용어가 규범 표기로 제시되었음에도 비규범 표기로 쓰인 사용 예시만 조사된다면 사용 예시 속 대상 용어를 비규범 표기로 제시하고 대상 용어 뒤에 ‘\*’ 기호를 붙인다.

## ⑥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항목에서는 대상 용어와 관련된 용어 정보를 입력한다. 관련 용어에는 표준 전문용어, 일치어, 동의어, 다듬은 말, 참고어, 북한어, 남한어가 있다.
- ① 표준 전문용어: 각 중앙 행정 기관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절차를 거쳐 고시한 용어
- ② 일치어: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분야, 원어, 의미 등)이 일치하는 용어
  - ※ 공공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기관·단체에서 구축한 용어를 모아서 신게 되는데 그 가운데 출처가 다르나 형태와 개념이 같은 용어는 일치어로 처리한다.
- ③ 동의어: 형태는 다르나 의미가 같은 용어. 대상 용어의 본말과 약어도 동의어로 처리한다. 이표기어는 검색용 이형태로 처리한다.
- ④ 다듬은 말: 외래 용어 등 어려운 대상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은 용어
- ⑤ 참고어: 상위어, 하위어, 계열어 등 대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용어
- ⑥ 북한어: 대상 용어의 관련 용어로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
- ⑦ 남한어: 대상 용어인 북한어의 관련 용어로서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

## 2.2.2. 연구진 자체 보완 정비 지침

본 연구진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정비 지침을 가지고서 정비 작업을 하면서 불거진 지침의 상세화 필요성에 걸맞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자체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지침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말샘』에 수록된 정보들을 어떻게 참고하고 이와 연계하여 어떻게 일관성을 기하면서 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진에서 마련한 세부 지



침은 아래와 같다.

## 1 표제어

1. 외래어의 경우 규범 표기와 비규범 표기가 모두 쓰일 경우 규범 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제어를 표기하고 비규범 표기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사항」에서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하도록 한다.

예) 플라즈마~플라스마: ‘플라스마’로 표제어 정보를 제시하고, 검색용 이형태로 ‘플라즈마’를 제시한다.

※『우리말샘』 검색 결과

- ㄱ. 플라즈마(plasma) 플라즈마 「001」 「명사」 『광업』 진한 녹색의 옥수(玉髓). ⇒ 규범 표기는 ‘플라스마’이다.
  - ㄴ. 플라즈마(plasma) 플라즈마 「002」 「명사」 『물리』 자유로이 운동하는 음양(陰陽)의 하전 입자(荷電粒子)가 중성 기체와 섞여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인 상태. 기체 방전으로 인한 기체 분자의 전리 상태나 별의 내부, 별들 사이의 공간에 있는 물질의 상태, 반도체 내의 전자와 양공(陽孔)의 집단 상태 따위이다. ⇒ 규범 표기는 ‘플라스마’이다.
  - ㄷ. 플라즈마(plasma) 플라즈마 「003」 「명사」 『생명』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 성분. 척추동물에서는 수분 외에 단백질·당질·지질(脂質)·무기 염류·대사 물질을 함유하며, 세포의 삼투압과 수소 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규범 표기는 ‘플라스마’이다.
2. 음역어 또는 의역어 전부 또는 일부가 외래어 원어가 그대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음역어 또는 의역어 전체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외래어 원어는 대역어로 제시하도록 한다.  
예) 용어: 지피에스^Principle of one Point Positioning, 원어: GPS一點測位の原理  
→ 표제어: 지피에스^일점^측위의^원리(※ 조사 다음에도 ^을 표시한다.)  
원어: (영어)GPS (한자)一點測位 (고유어)의 (한자)原理  
대역어: GPS Principle of one Point Positioning

## 2 원어

1. 한자어의 경우 반드시 『우리말샘』을 확인하여 자형을 확인하여 보고 자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전 검색을 통하여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것임이 확인되면 『우리말샘』에 있는 것으로 바꾸어 제시한다.  
※ 지침에 따라 한자 자형은 『우리말샘』 원어의 한자를 따른다.  
예) 와전: 瓦塼 → 瓦甎
2. 혼종어(복합어)인 경우 비한자어 자리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구성 요소의 순서에 따라서 원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예 1) 고구려자: 高句麗~(한자)자(고유어) → 高句麗(한자)자(고유어)

※ ‘高句麗~(한자)자(고유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 「원어」 부분에 ‘高句麗~자’와 같이 표시되어 나오게 되므로 ‘~’ 또는 ‘-’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예 2) 이차^에너지: 二次/energy[외래어] → 二次(한자)energy(영어)[혼종어]

3. 구성 요소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갈판: ~板갈 → 갈板, 갈모지: ~帽紙갈 → 갈帽紙

4. 대응 외래어가 원어 정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1) 유수분리조: 油水分離槽oil separator → 油水分離槽.

‘oil separator’는 「원어」에서는 삭제하고 「대역어」에서만 제시되도록 한다.

※ ‘유수분리조’의 「용어」 정보는 ‘유수^분리조’와 같이 제시되도록 한다.

예 2) 원자력: 原子力atomic power, nuclear energy → 原子力

‘atomic power, nuclear energy’는 「원어」에서 삭제하고 「대역어」에서만 제시한다.

### ③ 어종

1. 어종 정보는 구성 요소의 어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복합어인 경우 혼종어가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도록 한다.

예 1) 에너지^혁명: 한자어 → 혼종어

※ 에너지 혁명은 ‘energy(외래어) 革命(한자어)’의 구조이므로 혼종어가 된다.

예 2) 칠십칠^개국^그룹: 고유어 → 혼종어

### ④ 표기

1. 고유어 표기 및 한자어 한글 표기의 경우 맞춤법에 맞으면 모두 규범 표기가 된다.

예 1) 고구려척: 없음 → 규범 표기

예 2) 칠십칠^개국^그룹: 없음 → 규범 표기

2. 비규범 표기나 미확정 표기는 주로 한자어의 경우 복수음의 표기 양상이 잘못된 경우이거나 외래어 표기에서 규범 표기와 더불어 통용되는 표기이거나 사용 예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 ⑤ 정의문

1. 정의문의 끝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도록 한다.

예 1) 고구려척: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에서 쓴 자로 1척의 길이는 약 35cm임  
→ 수정: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에서 쓴 자로 1척의 길이는 약 35cm임.

예 2) 고구려자: 고구려에서 사용한 자  
→ 수정: 고구려에서 사용한 자.

2. 복합어의 경우 구성 요소의 나열로만 풀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뜻

풀이를 하도록 한다.

예) 와전: 기와와 전벽돌

→ 수정: 기와와 흙벽돌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관련어 관계를 맺는 것들의 정의는 서로 참고하여 담고 있는 정보에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 고구려척(‘고구려자’의 동의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에서 쓴 자로 1척의 길이는 약 35cm임

→ 수정: 고구려자(‘고구려척’의 다듬은 말): 고구려에서 사용한 자

4. 여러 문장으로 정의문을 제시할 경우에 사전적 정의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에 표제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가도록 한다. 그리고 정의문에는 표제어 또는 표제어의 구성 요소가 가능한 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1) 에너지<sup>^</sup>혁명: 주 연료로 사용하던 석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석유의 사용량이 늘어나듯이 나중에 원자력과 태양열 따위가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현상. 1953년부터 1963년까지 10년간 석유의 소비량은 8.3배로 증가되었으나 석탄 소비량은 겨우 1.4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소비 에너지의 변화를 에너지 혁명이라고 하고, 에너지 혁명은 대기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수정: 이전 시기에 주 연료로 사용하던 석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석유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었듯이 현재에는 에너지 공급원의 중심이 원자력과 태양열 따위로 옮겨 가게 되는 현상. 1953년부터 1963년까지 10년간 석유의 소비량은 8.3배로 증가되었으나 석탄 소비량은 겨우 1.4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소비 에너지의 변화를 이르는 말이며, 이런 변화에는 대기 오염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1953년부터 1963년까지 10년간 소비된 에너지의 변화, 석유의 소비량은 10년간 8.3배로 증가되었으나 석탄 소비량은 겨우 1.4배에 지나지 않음. 이러한 소비 에너지의 변화를 에너지 혁명이라고 함. 에너지 혁명은 대기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것을 『우리말샘』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정비한다.

※ 이와 같이 정비를 할 경우에 정의문의 출처는 ①『우리말샘』, ②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를 모두 넣어 줌.: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우리말샘』 /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 2) 유수분리조: 폐수 중에 들어있는 유분을 물과의 비중차를 이용해서 물에서 분리하기 위한 조(槽).

→ 수정: 폐수 중에 들어있는 유분을 물과의 비중차를 이용해서 물에서 분리하기 위한 통/탱크/장치.

※ 『우리말샘』에서 ‘\*분리조’로 분석을 하여 관련 예들의 정의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① 막<sup>^</sup>분리조(膜分離槽): 『환경』 오수 처리 시 생물학적 처리를 한 뒤 막을 사용하여 고액 분리 행하는 반응 장치. 탁질 덩어리, 대장균 따위도 분리할 수 있다.《우리말샘》

- ② 분리-조(分離槽): 『건설』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설치하는 탱크. 각 변수의 사용 인원 배치에 따라 크기를 결정한다.《우리말샘》
- ③ 재^분리조(재分離槽): 『환경』 석탄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재를 처리하는 장치. 보일러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재를 물과 섞어 분리조에 이송하여 투입한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재가 침전되면 탈수하여 남은 재를 차량으로 운반한다.《우리말샘》

예 3) 카멜: CAMEL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서 은행건전성감독 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방식이다. BIS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계량지표인데 비해, CAMEL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지표와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예컨대, 자본충실도를 평가할 때는 BIS비율 같은 계량지표 외에 경영진의 위험감시 및 통제능력,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이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같은 비계량 항목도 같이 따진다. 또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영업능력, 지배구조개선 추진상황, 법규 준수 등이 경영관리 능력에 포함된다.

→ 수정: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연방 예금 보험 공사 등 연방 은행 감독 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 경영 실태 평가 방식. 은행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자본 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 건전성(asset quality), 경영 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의 경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 실태 평가 방식이다.

##### 5. 표제어의 품사 정보에 맞게 정의문을 작성한다.

예) 칠십칠^개국^그룹: 1964년의 제 1 차 UNCTAD총회에서 77개 개발도상국이 그룹이 되어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하였으며, 실제 참가국은 1987년 현재 13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특정의 기구는 없으나 UNCTAD 등의 국제적 회의에 대비하여 각료회의를 열고 개발도상국의 의견조정, 선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요구 등을 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 수정: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지향하여 1964년에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총회를 계기로 77개 개발 도상국이 결성하여 출범한 교섭 단체. 특정 기구는 없으나 개발 도상국의 의견을 조정하고 선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 요구 등을 행하며 1987년 현재 13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우리말샘』에서 ‘\*그룹’으로 검색을 하여 관련 예들의 정의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 ① 개발^도상국이^주가^된^교섭^그룹(開發途上國이主가된交渉group): 「001」 『정치』 국제 연합 관련 교섭에서 130개국 이상의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구성된 교섭 단체. 설립 당시는 77개국이었다.
- ② 개방^사용자^그룹(開放使用者group): 「001」 『정보·통신』 통신 회선을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 통신 센터의 주컴퓨터와 연결하여, 개인용 컴퓨터 통신의 회원 상호 간에 메시지나 데이터를 교환하고 호스트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개인용 컴퓨터 통신 따위의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공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

- ③ 객체<sup>^</sup>관리<sup>^</sup>그룹(客體管理group): 『정보·통신』 객체 지향 기술의 보급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객체 관리 구조에 준거하여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의 조작 환경을 통일할 목적으로 1989년에 발족되었다.

6. 『우리말샘』을 참고하여 정의문에 사용되는 메타언어의 표기는 규범에 맞게 표현한다.

예) 종<sup>^</sup>간<sup>^</sup>경쟁: 생장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어떠한 종 개체군, 상호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관계.

→ 수정: 생장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어떠한 종 개체군, 상호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

## 6 관련 용어

1. ‘일치어’의 처리: 정비 대상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 자료집에만 수록되어 있고 다른 종류의 용어 자료집이나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치어로 처리하지 않음.
2. 동의어의 처리: 이른바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말에 해당하는 것을 표제어로 올리고 준말에 해당하는 것을 동의어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예) (근)저당권, 증빙(서류, 자료), 이차보전금(액), 거치(기간)

→ ① 표제어: 근저당권, 증빙 서류, 증빙 자료, 이차 보전 금액, 거치 기간

② 동의어: 저당권, 증빙, 이차 보전금, 거치

## 7 사용 예시

1. 사용 예시는 가능한 한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한다.
2. 사용 예시는 표제어와 일치하는 형태가 쓰인 것만을 골라서 제시한다.

예 1) 고구려척: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동아시아 최강국 고구려 그런데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고구려의 일등공신은 강인한 철갑기병도 뛰어난 대외정책도 아니었다. 35.6cm의 자는 1척5촌 이것이 고구려의 길이 단위인 ‘척’.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제 진시황. 그가 우선시한 국가 제일의 과제 도량형의 통일.

→ 주의점: 위 예는 고구려척과 관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구려척’이란 형태가 쓰인 것은 아니므로 사용 예시에 적합한 예라 하기 어렵다.

예 2) 와전: 이 사지는 주변에 장대석이 많고 석탑재와 기와조각, 도자기조각이 산재해 있어 이곳을 ‘와당밭’이라고 일컫을 정도로 와전류(瓦塼類)가 많이 출토되었다.

→ 주의점: 위 예에서 보이는 ‘와전류’의 ‘류’는 접사이므로 ‘와전류’가 한 단어가 된다. 따라서 사전학적 관점에서는 ‘와전’과 ‘와전류’는 각각 단어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와전류’가 ‘와전’의 사용 예시가 될 수 없다.

※ 표제어가 될 만한 복합어나 구는 사용 예시로 제시하지 않는다.

3. 사용 예시는 표제어와 품사 범주가 맞는 것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뿐만 아니라 다른 활용형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예) 표제어가 ‘환급’인 경우 사용 예시는 단독형인 ‘환급’이거나 조사 결합형인 ‘환급이’, ‘환급을’, ‘환급에’ 등을 제시하도록 하며, ‘-하다’나 ‘-되다’가 결합한 ‘환급하여’, ‘환급하고’, ‘환급되며’, ‘환급된’ 등을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반대의 경우로 ‘환급하다’나 ‘환급되다’가 표제어일 때 ‘환급’ 또는 ‘환급이’, ‘환급을’, ‘환급에’ 등이 사용 예시로 제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예문에서 쓰인 한자어의 처리: 한자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예) 왕태후궁: 을미개혁으로 개편된 궁내부에는 내사과·외사과·대신관방과 특진관 16명 등을 두고, 왕태후궁王太后宮을 비롯한 각 궁宮·서署 및 시종원侍從院·비서감秘書監·규장원奎章院·회계원會計院·내장원內藏院·제용원濟用院과 18개 사司를 관장하였다.

→수정: 을미개혁으로 개편된 궁내부에는 내사과·외사과·대신관방과 특진관 16명 등을 두고, 왕태후궁을 비롯한 각 궁(宮)·서(署) 및 시종원(侍從院)·비서감(秘書監)·규장원(奎章院)·회계원(會計院)·내장원(內藏院)·제용원(濟用院)과 18개 사(司)를 관장하였다.

※ 이때 표제어에 해당하는 한자는 원어 정보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이곳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5. 외래어 음역어인 경우에 사용 예시가 표제어의 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어를 제시한 다음에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예) 표제어: 에스엘비에스, 원어: SLBS(영어)

ㄱ. 검색 결과: SLBS의 발행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19일, 20일, 21일 고시한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금리에 낙찰된 스프레드의 합으로 결정된다.

ㄴ. 사용 예시 제시 방법: 에스엘비에스(SLBS)의 발행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19일, 20일, 21일 고시한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금리에 낙찰된 스프레드의 합으로 결정된다.

6. 사용 예시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작성한다.

① 띄어쓰기는 규범에 맞게 제시한다. 특히 사용 예시 속의 표제어는 반드시 표제어의 띄어쓰기와 맞추도록 한다. 다만 사용 예시 속의 표제어에는 ^ 표시는 하지 않는다.

② 이 이외의 표기법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한다. 예를 들어 ‘맞히다’를 써야 할 자리에 ‘맞추다’를 쓴 것 등은 규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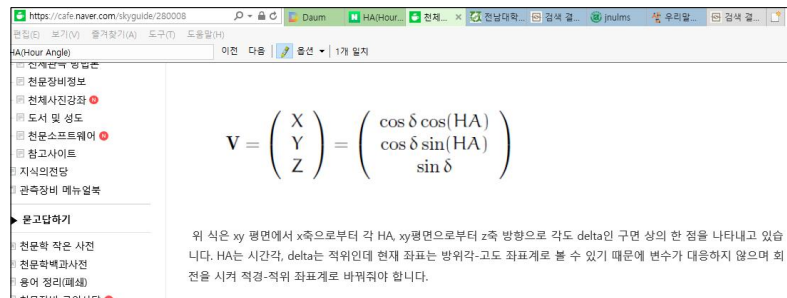
③ 문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수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7. 출처 표시 관련

(1) 발행 연도가 있는 것들은 꼭 표시하도록 한다.

- 예) 왕태후궁: 전시해설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188쪽 → 이 “전시해설서”의 발행 연도가 누락되어 있음.  
※ “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2015년, 188쪽.
- (2) 누리집에서 가져온 경우에는 주소창에 표시된 주소를 복사해 붙인다.  
예) 와질토기: 누리집 / 문화재청, 문화유산 검색, 경주 구정동 고분군 (慶州 九政洞 古墳群) → 주소를 누락하지 않고 복사한 후 반드시 기재할 것
- (3)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 (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쓴다. 제시 순서는 다음의 예를 참고하되, 각 자료의 특성에 맞게 제시한다.
- ① 제시되는 정보가 이어질 때에는 반드시 ,(쉼표)로 경계를 구분하며, ,(쉼표) 다음에는 반드시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특히 날짜 뒤에도 반드시 ,(쉼표)를 표시한다.  
예 1) 2020. 12. 13. → 수정: 2020. 12. 13.,  
예 2) 금강일보, 2020. 12. 13. 태안군, 내년 벼 종자 확보 완료 ‘풍년농사 이상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92>  
→ 수정: 금강일보, 2020. 12. 13., OO군, 내년 벼 종자 확보 완료 ‘풍년농사 이상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92>
- ② 누리집, 인터넷 기사, 블로그 등을 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소 전체를 복사하여 맨 끝에 붙이도록 한다.  
예) <https://www.energy.or.kr/> → 수정: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info/gdk/Mapmodule/Files/MEX\\_1511.pdf](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info/gdk/Mapmodule/Files/MEX_1511.pdf)
- ③ 기사의 경우 제목이 온전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 다시 검색하여 반드시 제목 전체를 표시하도록 보완한다.
- ④ 날짜 표시에서 십의 자리에 들어간 ‘0’은 모두 삭제한다.  
예) 2021. 07. 04. → 수정: 2021. 7. 4.
- ⑤ 책 이름으로 판단되는 것에는 “책 이름” 표시를 한다. 그리고 논문 이름으로 판단되는 것에는 ‘ ’ 표시를 한다.
- ⑥ 학술지 논문에서 사용 예시를 추출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한다.  
예) 홍길동(2012), ‘율도국을 그리며’, “홍길동 연구” 23-1, 홍길동연구학회, 15쪽.
8. 사용 예시를 입력할 때 대상 용어가 규범 표기로 제시되었음에도 비규범 표기로 쓰인 사용 예시만 조사된다면 사용 예시 속 대상 용어를 비규범 표기로 제시하고 대상 용어 뒤에 ‘\*’ 기호를 붙인다.  
예) 플라즈마: OOOOOO은 ‘공기 청청기용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 발생기’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 시킨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_저온^플라즈마^발생기>
9. 사용 예시를 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카페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블로그 또는 카페가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해당 사이트의 주소와 더불어 사용 예시 부분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한 후 저장하여 연구관리진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파일 형태는 PNG 형태로 하며 파일명은 ‘분과명\_전

문 분야명\_용어명'의 순서로 붙인다.



[그림 1] 지적 용어해설집\_지구과학\_에이치에이(HA)



[그림 2] 무역 보험 용어집\_경제경영\_확장 담보

## ⑧ 참고 사항

1. 검색용 이형태를 제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 ① 표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같은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으로써 생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다. 즉 띄어쓰기의 차이나 표기에 사용한 문자가 한글,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② 외래어 음역어 등의 경우에 규범 표기에 해당하는 것만을 정비 대상 표제어로 하기로 함에 따라 비규범 표기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를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한다. 따라서 다른 형태가 들어간 것은 검색용 이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고구려자: 고구려척 → 삭제\_용어명의 순서로 붙인다.



### 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 3.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정비 지침 보완

정비 작업의 가장 첫 단계는 기구축 자료를 검토하여 정비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즉 거시 구조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고르는 일과 이 표제어로 표상되는 정의, 이 의미에 걸맞은 사용 예시, 분야 분류, 관련어 등의 미시 구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구축 용어 가운데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바탕이 되거나 관련도가 높은 용어를 고르고, 이렇게 고른 어휘들의 미시 구조의 구축 상황을 살펴 이번 과업의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비 대상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로 앞의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7개 자료집에서 모두 11,00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3>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기구축 용어집명	→	정비 대상 용어 개수
①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621개 항목)	→	321개 항목
②	『주택금융용어집』(183개 항목)	→	183개 항목
③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630개 항목)	→	630개 항목
④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1,866개 항목)	→	1,866개 항목
⑤	『한국 문화재 용어』(2,823개 항목)	→	2,821개 항목
⑥	『무역 보험 용어집』(2,056개 항목)	→	2,056개 항목
⑦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11,786개 항목)	→	3,213개 항목
	누계		11,000여 개 항목

정비 지침은 2.2.1.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것을 가지고서 실제 작업을 시작하려다 보니 미시 구조에 들어갈 내용을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제시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일 등을 비롯

하여 지침이 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2.2.와 같은 자체 보완 지침을 만들어서 작업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 3.2. 용어 배분

2.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어휘 11,000개를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http://termwork.korean.go.kr/>)에서 연구 보조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정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용어 배분 시에는 기구축 용어집(분과) 내에서 용어를 분배하여 연구원들이 비슷한 성격의 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기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배분 원칙에 따라서 먼저 연구 보조들에게 해당되는 [그림 3]과 같은 작업 배분 계획이 나오게 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서 1차 작업을 할 연구 보조원에게 작업 대상이 되는 어휘를 배정하였다.

공공용어 정비사업 연구 보조원 작업배분

	문화재	무역 보험	주택 금융	보건, 의료	토지	지적	환경	총 개수
최옥정	1~620(620)							620
김다솔	621~1950(1330)							1330
강은진	1951~2730(776)			1~24(24)				800
이유미				25~621(302)			7981~10028(498)	800
고상미			1~183(183)		1~630(630)	1~547(517)		1330
김신혜							3789~7980(1330)	1330
하현정							847~3785(800)	800
이지성		1~1330(1330)						1330
미즈카이유카리		1331~2056(725)					54~912(605)	1330
오지수						548~1866(1319)	29~53(11)	1330
배분총계								11000
분야별총계	2726	2055	183	326	630	1836	3244	11000

[그림 3] 공공용어 정비 사업 연구 보조원 작업 배분표

연구 보조원이 시스템에 가입을 완료하면 분과원 권한을 부여하였다. 분과원으로 권한 설정 후 시스템의 작업 분야 전체(분류 체계, 용어, 원어, 표기, 대체 용어, 정의문, 관련 용어, 대역어, 사용 예시, 참고 사항)에 대해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과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관리자)

사용자 권한 관리 (분과원)

영상 설명서 사용자 관리 (권한)

서면 설명서 사용자 관리 (권한)

분과

2021\_분야별 공공용어 정비B(문화재용어사전)\_1\_대상용어

찾을 대상

이름

찾기

모두 10명의 분과원이 있습니다.

추가

번호	이름	계정	권한명	등록 날짜	사용자 정보 수정/삭제
10	ohjsu	ym5587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9	최옥정	christina855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8	하현정	hyunjha90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7	이유미	leeyumi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6	이지성	youuell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5	미즈카이 유카리	13174pfu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4	강은진	ght0122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3	고상미	ksm201149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2	김다솔	na345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1	김신혜	shinhye33	분과원	2021-06-14	<a href="#">수정</a> <a href="#">삭제</a>

[그림 4] 분과 사용자 관리 화면(분과원)

이렇게 분배된 것을 연구 보조원이 작업하여 집필 완료가 되면 공동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하였다. 이때 연구 보조원과 공동 연구원은 가능한 짝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집필,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찾을 대상

용어

찾기

모두 3건의 결과가 있습니다.

☒ 내 것만 보기
 


10개씩 보기

번호	분야	용어	원어	대체 용어	정의문	사용 예시	집필자	상태
3	-	$\beta$ -RAY ABSORPTION METHOD	-	-	베타선흡수법	-	이수진2 (lsj005122)	집필 전
2	-	$\beta$ -mesosaprobic	-	-	$\beta$ -중부수성 지역; 하천에 하수등유기성 오수의...	-	이수진2 (lsj005122)	집필 전
1	-	$\alpha$ -mesosaprobic	-	-	$\alpha$ -중부수성 지역; 하천에 하수등유기성 오수의...	-	이수진2 (lsj005122)	집필 전

[그림 5] 연구 보조원 배분 후 작업 대상 확인

[그림 5]와 같이 ‘내 것만 보기’를 눌러 각자에게 배분된 항목만을 불러내어 연구 보조원이 집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차 집필 후 항목 분할, 신규 설정 등으로 총 11,032개 항목이 공동 연구원에게 배분되었으며 [그림 6]과 같이 배분 후 공동 연구원들은 모두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용어 정비사업 공동 연구원 작업배분**

	문화재	무역 보험	주택 금융	보건, 의료	토지	지적	환경	총 개수
조재형	1~1415(1415)							1415
최지영	1416~2732(1317)	1415~1513(98)						1415
백승주		1~1415(1415)						1415
이수진		1514~2056(543)	1~183(183)	1~621(321)			150~29(80)	1127
조경순					1~630(630)	1~785(785)		1415
유하라						786~1866(1081)	588~153(334)	1415
최윤							9059~5002(1415)	1415
임태운							4927~589(1415)	1415
배분총계								11032
분야별총계	2732	2056	183	321	630	1866	3244	11032

[그림 6] 공공용어 정비사업 공동 연구원 작업배분표

### 3.3. 용어 집필

용어 집필은 집필 지침에 따라서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배정받은 항목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가고 정확성과 적절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가며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은 물론이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용어 사전 등을 충실히 검토하면서 이 과업의 취지에 걸맞은 용어 집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용어 집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 순서: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사용 예시, 관련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표제어: 기본적으로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한다.
- 원어: 누락된 정보를 찾아 보충하고 정확성을 기한다.

- 정의문

- ① 단어 또는 구로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문장 정의로 수정 및 보완한다.
- ② 정의문은 언어적인 정의를 나타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부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어적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에 부가 정보를 제시한다.
- ③ 정의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정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감수 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의문을 작성한다.

- 분야: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한다.

- 사용 예시: 공공용어의 의미와 사용 분야에 걸맞은 문장 단위 예시를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하여 신문, 잡지, 보고서, 논문 등에서 뽑아 제시하고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 관련어: 용어의 형태, 의미, 전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구축된 자료에 제시된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충실히 표시한다.

이번 과업에서 사용 예시 확보를 하는 것은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정보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용 예시 확보에 어려움이 커서, 정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보고서, 계획서 등의 공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용 예시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재, 지적·토지, 환경, 무역·보험 등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 예시 검색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자면, 문화재 관련 용어에서는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분야의 각종 보고서, 지침서, 소개자료, 도록 등이 포함된 것을 제시하였다. 지적·토지 관련 용어는 국토 계획법 관련 자료, 주택 업무 편람, 부동산 연차 보고서, 건축물 구조 설계 해설집 등이 포함된 것을 제시하였다. 환경 관련 용어에서는 생활 폐기물, 환경 유해인자, 유해 유기 화학 물질, 국민 환경 보건 기초 조사, 화학 사고 등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나 자료집이 포함된 것을 제시하였다. 무역·보험 관련 용어는 통상 환경, 산업부 백서, 한국 경제 관련 각종 보고서 등과 관련한 자료집이 포함된 것을 제시하였다.

이들에서도 사용 예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만일 사용 예시가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보이는 경우라면 이곳의 예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곳

에서 쓰이는 경우는 출처의 성격상 공공용어로서의 쓰임에서는 가장 먼 것이므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나, 정비 대상 용어가 실제로 쓰이는 실태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므로 그 가치가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이런 경우의 예를 적극적으로 찾아 제시하여 사용 예시 제시 비율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 3.4. 용어 검토 및 보완

용어 검토는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집필되어 채워졌는지, 전문 분야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용 예시 제시가 되어 있으며 적절한 것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즉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사용 예시, 관련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작업 순서에 부합하게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들이 착실히 제시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를 해 나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을 하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채워 넣어 정비 내용에 빈칸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검토 작업의 기준은 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과 연구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지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업을 해 나가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연구진 내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한 처리 방향이 주관 기관과의 협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의 논의를 거쳤다.

이와 같이 과정을 거쳐 검토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연구 책임자가 살펴보고 정확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작업자들 사이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적절히 하였다.

### 3.5. 감수 및 보완

#### 3.5.1. 전문 분야 전문가

연구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들은 전문 분야별로 결과물을 추출하여 <표 4>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내용 감수를 요청하여 용어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확인받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내용을 지적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표 4> 전문 분야 및 분과별 감수 관련 정보

전문 분야명	감수 위원 관련 정보	소 속
수학	김○○	전남대 수학과
물리학, 화학, 화공	김○○	전남대 화학과
지구과학	노○○	전남대 지구환경과학과
생명과학, 농림수산, 보건의료	곽○○	창원대 생명보건학부
기계(1), 재료, 전기/전자, 에너지, 원자력	이○○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환경	하○○	창원대 생명보건학부
정보/통신	김○○	전남대 전자공학과
건설/교통, 지리/지역, 기계(2)	박○○	전남대 토목공학과
법, 정치/행정, 사회/인류	오○○	창원대 법학과
경제/경영	안○○	창원대 회계학과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문학, 생활	남○○	창원대 사학과

이 감수 위원들에게 검토를 요청한 바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였다.

- ① 전문 분야 판단의 적절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의미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 방향에 맞게 잘 분류되었는지 판단 요청.
- ② 용어(표제어) 및 어원 제시의 정확성: 용어의 표기, 특히 어원이 정확한지를 검토 요청.
- ③ 쉬우면서도 정확한 정의문인지 판단: 정의문은 전문 분야의 의미 사용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간결하고 고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이 보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현재의 정의문이 이 방향에 맞게

- ④ 용어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용 예시인지 판단: 용어의 의미와 용법에 걸맞게 쓰인 보기로서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어긋난 사용 예시가 제시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사용 예시 대체 방향 제시를 요청.
- ⑤ 관련어의 오류 여부 판단: 용어(표제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용어들 사이의 관계 및 오류 검토 요청.

[illegible]

– 34 –



### 3.5.2. 어원 관련 전문가

표제어의 어원이 정확한지, 오탈자는 없는지를 어원 관련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검토를 받았다. 실제 정비 자료가 어원상 한자어와 영어계 외래어가 다수를 이루는 것에 따라서 한자어 전문가와 영어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감수를 받았다.

<표 5> 원어 관련 감수 정보

감수 위원 관련 정보		감수 위원	소 속
감수 내용			
어원	영어 등 인구어	백○○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한자어 및 일본어	장○○	계명대 일어일문학과

어원 관련 감수 작업도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엑셀로 내려받은 모든 항목에 감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만들어 제공하고 검토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 3.5.3. 국어 및 사전 전문가

정비 작업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이 정의문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답게 정확하고 간명하게 표현되었으며, 답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어 및 사전 전문가에게 감수를 요청하여 검토를 받았다.

<표 6> 국어 및 사전 관련 감수 정보

감수 위원 관련 정보		감수 위원	소 속
감수 내용			
국어 및 사전		남○○	창원대 국어국문학과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감수 작업은 전문 분야 감수 및 원어 감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엑셀로 내려받은 작업 결과물에 감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만들어 제공하고 검토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 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 4.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표제어의 개수는 모두 10,222개이다. 기구축 용어집별로 정비 완료를 한 항목의 개수는 <표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7> 정비 완료 분야별 표제어 항목 수

용어집명 \ 항목 수	검토 완료 항목 수(개)
한국 문화재 용어	2,703
무역 보험 용어집	2,069
주택금융용어집	180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	329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	629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	2,578
지적 및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	1,734
계	10,222

실제로 집필을 시도한 항목은 앞의 <표 3>에서 본 바와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11,000개였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 작업을 하다 보니 정의문을 원만하게 채워 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다수 있어서 집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표제어가 한 자료집 내뿐만 아니라 자료집 사이에서 중복된 것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외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복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얻은 항목의 개수는 10,222개가 되었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문화재 용어』가 가장 많은 개수의 항목이 정비되었고 이어서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 『무역 보험 용어집』, 『지적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 『주택금융용어집』의 순으로 항목들이 정비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용어는 기구축 자료집의 성격을 보면 문화재, 환경, 부동산, 무역 등의 경제, 보건 및 의료 등의 용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막상 각 용

어들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종합하여 보니 <표 8>에서와 같은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8> 전문 분야별 정비 항목 수

분과 분야명	문화재	무역보험	주택금융	보건의료인	토지이용	환경	지적	계
	항목 수	항목 수	항목 수	항목 수	항목 수	항목 수	항목 수	
수학	0	1	0	36	0	2	110	149
물리학	0	1	0	0	0	158	48	207
화학	2	0	0	0	0	434	1	437
지구과학	5	0	0	0	7	174	204	390
생명과학	0	0	0	0	0	185	0	185
농림수산	3	1	0	0	28	96	2	130
보건의료	0	1	0	4	3	109	1	118
기계	1	0	0	0	11	103	136	251
재료	3	0	0	0	0	33	1	37
화공	0	0	0	0	0	52	1	53
전기/전자	0	0	0	0	2	57	46	105
정보/통신	0	1	0	0	6	1	136	144
에너지/자원	0	3	0	0	22	80	0	105
원자력	0	0	0	0	0	28	0	28
환경	0	1	0	0	64	876	40	981
건설/교통	192	16	20	0	213	72	358	871
역사/고고학	1,468	0	0	0	0	0	5	1,473
철학/종교	321	0	0	0	0	1	0	322
언어	0	0	0	0	0	0	0	0
문학	3	0	0	0	0	0	0	3
문화/예술	372	2	0	0	21	2	1	398
법	0	165	41	10	14	16	58	304
정치/행정	0	74	0	103	110	9	33	329
경제/경영	0	1,793	93	14	9	29	14	1,952
사회/인류	0	6	0	2	9	10	3	30
생활	332	0	0	0	11	0	0	343
지리/지역	0	1	22	0	90	37	526	676
심리	0	1	0	1	0	0	0	2
교육	0	0	0	157	3	1	0	161
미디어	0	1	0	2	0	0	1	4
뇌과학	0	0	0	0	0	0	0	0
인지	0	0	0	0	0	0	0	0
과학기술	0	0	0	0	6	0	3	9
기타	1	1	4	0	0	13	6	25
계	2,703	2,069	180	329	629	2,578	1,734	10,222

정비가 된 용어 10,222개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상위에 있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경영(1,952개) > ② 역사/고고학(1,473개) > ③ 환경(981개) > ④ 건설/교통(871개) > ⑤ 지리/지역(676개) > ⑥ 화학(437개) > ⑦ 문화/예술(398개) > ⑧ 지구과학(390개) > ⑨ 생활(343개) > ⑩ 정치/행정(329개) 등이 상위 분야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로써 이런 분야의 어휘들이 공공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문화재』, 『무역보험』, 『주택금융』, 『보건의료인』, 『토지이용』, 『환경 및 무역』, 『지적』 분과에 한정하여 각 분과 내에서의 분야별 분포를 확인하여 보면 기구축 용어집에 어떤 성격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이는 각 용어집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에서는 ① 건설/교통 > ② 정치/행정 > ③ 지리/지역 > ④ 환경 > ⑤ 농림수산 > ⑥ 에너지/자원 등의 순으로 용어들이 분포한다. 이것은 토지 이용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토지를 필요한 형태로 바꾸거나 토지를 활용하는 것, 인허가 등과 관련한 각종 제도, 지리적 특성이나 위치, 주변 환경 등과 관련을 맺는 것이 주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과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용 예시의 구축이었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공공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쓸 수 있도록 참고가 되는 것들이다. 정비가 된 용어 10,222개 가운데에 9,069개에 사용 예시가 구축되어 88.72퍼센트의 구축 비율을 보이게 되었다.

<표 9> 분과별 검토 완료 항목의 사용 예시 구축 현황

항목 수/비율 분과명	검토 완료 항목 수	사용 예시 구축 항목 수	사용 예시 미구축 항목 수	사용 예시 구축 항목 비율
문화재	2,703	2,584	119	95.59%
무역 보험	2,069	1,680	389	81.19%
주택금융	180	165	15	91.66%
보건 의료인	329	308	21	93.61%
토지 이용	629	617	12	98.09%
환경 및 무역	2,578	2,329	249	90.34%
지적	1,734	1,386	348	79.93%
계	10,222	9,069	1,141	88.72%

이 사용 예시는 거의 다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에 실린 안내 글 또는 공개 자료,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 또는 백서, 학술 논문이나 학술 서적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적인 언어 사용을 충분히 대표하는 것들이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이용』 분과의 사용 예시 구축률은 98.09퍼센트로 가장 높다. 반면에 『지적』 분과의 구축률은 79.93퍼센트로 가장 낮고 이어서 『무역 보험』이 81.19퍼센트로 낮은 편이었다. 이들에서 사용 예시 구축률이 낮은 것은 이들 분야에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의미를 갖는, 사용 빈도가 낮은 용어가 쓰이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 4.2. 표제어 및 어원 정비

표제어 및 어원은 정비 지침에 따라 표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식으로 하였다. 정비의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는 정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한글로 표기를 하고 규범에 맞는 것만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비규범 표기는 실제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 표기가 있다면 규범 표기로 제시하고 비규범 표기는 관련어로 비규범 표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였다. 표제

어가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 를 표시하여 경계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표제어에 대응하는 원어 정보를 빠짐없이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바를 보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대상 용어	원어	비고
화랭이		원어 종류는 ‘고유어’
머리글		원어 종류는 ‘고유어’
추녀		원어 종류는 ‘고유어’
현지^금융^제도	現地金融制度	
합격선	合格線	
추석	秋夕	
포지티브^플레지	positive pledge	
하이^일드^펀드	high-yield-fund	
그리니치	Greenwich	고유 명사
엘더블유엘	LWL(Low Water Level),	
시피에스	CPS(Characters Per Second)	
중대한^과실	重大한過失	고유어+한자어
모델의^레벨링	model의leveling	고유어+인구어계 외래어
트랜스^로케이션	translocation	인구어계 외래어의 결합
칼보주의	calvo主義	인구어계 외래어+한자어
가께수리	kakesujuri[掛碩]	일본어

먼저 원어와 관련하여 대상 용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원어 정보를 칸을 비워 두었다. 그리고 대상 용어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표제어는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구성 요소의 경계를 표시하였으나 원어의 한자는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다. 원어가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어가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다.

표제어가 로마자 두문자어로 된 약어인 경우,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소괄호 안에 본말(줄어들지 않은 본래의 용어)를 기재하였다. 이때 본말 중 약어(머리글자만 따는 등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줄인 용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다. ‘엘더블유엘’과 ‘시피에스’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원어가 혼종어인 경우, 각각의 언어 종류를 선택하고, 언어별로 원어를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위 표에서 ‘중대한^과실’, ‘모델의^레벨링’, ‘트랜스^로케이션’, ‘칼보주의’는 이런 혼종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원어가 일본어인 경우, 원어는 가나나 한자가 아닌 헤본식 표기 원칙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이를 나타내는 한자가 일본어에서 존재할 경우에 그 뒤 로마자 표기 다음에 [ ] 안에 한국식 한자로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가게수리’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원어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는 판단이 쉽지 않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정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진에서는 『우리말샘』의 처리 방향을 참고하고 연구진 내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고 국립국어원에 보고를 한 후 일관되게 처리하려 노력하였다.

## □ 원어 정보 처리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취음자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 ‘타령’을 ‘打令’으로 한자음을 빌려 한자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유어로 처리함.
- 한자어와 외래어 구분 처리: 음상을 중시하여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판단하도록 함.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처리 방식도 이와 같음.
  - ① ‘가라빈가’를 산스크리트어 ‘Kalavinka’나 ‘迦羅頻伽’를 원어로 볼 수 있는데 한자음과 음상이 같은 점을 중시하여 한자어로 처리함.
  - ② ‘가루라’의 경우는 ‘迦樓羅’와 음상이 같으므로 한자어로 처리하고, ‘가루다’는 <산스크리트어> ‘Garuda’와 음상이 같으므로 외래어로 처리함.
- 한자 어원을 지닌 중국어 기원 등의 차용어 처리: ‘투구’는 한어 ‘頭盔’를 차용한 말이나 국어 한자음으로 읽은 ‘두회’와 실제 쓰이는 어휘 ‘투구’ 사이에는 거리가 있으므로 고유어로 처리함.

이와 같은 지침과 처리 방향에 따라 본 연구진에서는 표제어와 어원 정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수 위원에게 보이고 검토를 요청하여 보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보완하였다. 감수 위원이 제시한 감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를 연구진에서는 논의를 통하여 정비 내용에 적절히 반영을 하였다.

# 1) 표제어

## (1) 전문 분야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경우

용어	표제어	
	작업 내용	감수 내용
대수의^법칙	대수의^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고 주로 씁니다.

이와 같은 감수 내용은 해당 용어의 현실적인 유통 양상을 지적인 것이므로 살아 있는 용어 사용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번 과업에서 기구축 용어 자료집에 실려 있는 바가 오류가 없다면 충실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구축 용어 자료집에 제시된 용어집이 만들어질 때의 용어 쓰임 실태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표제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런 용어의 쓰임을 반영하는 것이 공공용어 정비를 하는 취지에 마땅하기에 정비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감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문에 부가 정보로서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감수 내용을 담았다.

감수 이전	감수 내용 반영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경우,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경험 법칙.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경우,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경험 법칙. 주로 ‘큰 수의 법칙’이라고 쓴다.

## (2) 규범 표기 미반영

용어	표제어	
	작업 내용	감수 내용
뉴우턴의^조건	뉴우턴의^조건	뉴턴의^조건

감수 내용 중에는 외래어 표기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지 못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지적 사항은 즉각 반영하여 표제어의 표기를 수정하였다.

## 2) 어원

### (1) 잘못된 한자를 쓴 경우

표제어	원어 정보	
	연구진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양허	諒許	讓許? 단, 이 한자표기는 정의문과 맞지 않음. 인터넷 조사로는 ‘諒許’도 많이 검색되지 않음.
증권^예탁원	證券預託院	證券預託院
수취증	收取證	受取證?
원수보험	原受保險	原受→元受
부보율	付保率	附保率
기업^경기^실사^지수	企業景氣實事指數	企業景氣實查指數
제산제	製酸劑	制酸劑
정전^정유^장치	精電淨油裝置	靜電淨油裝置
인화점	燐化點	引火點
수질^지표	水質地標	水質指標

위 내용 중 ‘부보율’의 경우, 원자료에는 ‘付保率’로 되어 있으나 감수 결과는 ‘附保率’로 제시되어 있는데, ‘付’와 ‘附’는 부분적으로는 동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付’를 쓰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附’를

쓰는 것이 의미적 투명성이 높고 『우리말샘』에도 ‘附保率’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附保率’로 제시하게 되었다.

## (2) 축약어 원어 표현 수정 및 보충

표제어	원어 정보	
	연구진 작업 내용	감수 내용
티이유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에스비시엘	SBCL	SBCL(Special Buyer Credit Limit)
능력 외 이론	이사의 의무 중 특이한 점은 이사에게 능력 외 이론( <i>ultra vires doctrine</i> )을 적용하여 회사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이사회 또는 개별 이사의 권한 범위외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능력 외 이론(The Doctrine of Ultra Vires)

감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와 같이 두자어인 ‘TEU’의 원어가 되는 구성 요소 가운데에 Feet가 복수가 아닌 단수 foot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즉 구성 요소의 형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 하겠는데, 이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괄호 안에 들어갈 원어 정보를 ‘Twenty foot Equivalent Unit’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에스비시엘’에서와 같이 병기되는 ‘SBCL’에 구성 요소가 충실히 제시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정비 지침에 따라서 괄호 안에 원어의 본딴말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감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SBCL(Special Buyer Credit Limit)’과 같이 원어 정보를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였다.

‘능력 외 이론’은 정의문이나 사용 예시에서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원어 또는 대역어를 제시하는 방법과 관련한 경우이다. 위 예문은 사용 예시에 쓰인 것을 가져온 것인데 이곳의 “능력 외 이론(*ultra vires doctrine*)”은 학술 논문에 쓰인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감수 결과와 같이 대

역어를 “The Doctrine of Ultra Vires”로 수정을 하게 되면 사용 예시 본연의 모습이 손상되므로 수정을 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최초의 작업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철자 누락

표제어	원어 정보	
	연구진 작업 내용	감수 내용
도미실레이션	domicilation	domiciliation
다이옥신^제거	dioxine除去	dioxin除去
디젤^입자상^물질	Disel粒子狀物質	Diesel粒子狀物質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어 정보 가운데는 철자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감수 결과를 받아들여 기 구축 자료에서 누락된 철자들을 수정을 하였다.

### (4) 대문자 사용 및 띄어쓰기

표제어	원어 정보	
	연구진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開發銀行	Africa開發銀行
불릿^론	bulletloan	bullet loan

이와 같은 감수 내용은 표현 형식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위 예에서 보듯이 아프리카와 같은 고유 명사는 대문자로 씀이 마땅하므로 감수 내용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불릿^론’의 경우도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함을 반영하여 띄어쓰기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였다.

### 4.3. 전문 분야 분류

어떤 용어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 용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용어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경우가 널리 나타나서이다. 또한 어떤 용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이에 표제어의 형태만을 가지고서는 분야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처리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과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최종^덤핑^방지^관세(最終dumping防止關稅)’의 경우는 ‘덤핑’이나 ‘관세’란 용어만 보아서는 ‘경제/경영’에서 ‘국제경제’ 또는 ‘국제경영’ 또는 ‘무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의문이 ‘일단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부과되는 덤핑 방지 관세’이므로 관세 당국의 행정 행위가 있고서 이루어지는 조치 내용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분류로는 ‘법’, 중분류로는 ‘분야별전문법’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인 ‘관세’의 판단 및 부과 기준이 되는 관세법이 포함될 만한 중분류가 현재의 국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가장 근접한 것을 택한 결과이다.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도 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면에서 ‘법’에 속하는 용어로 분류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버뮤다 등의 조세피난처에 설립되는 회사로 법인으로 설립과 등록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도 하지 않는 회사’와 같이 정의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샘』에서 ‘회사’를 경제적 행위를 하는 법인으로 풀이하면서 『경제』로 분류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경영’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중분류는 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회사가 설립되었음에 근거를 두고 ‘경영전략/윤리’로 분류를 하였다.

‘임차권(賃借權)’은 ‘경제/경영’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이 ‘권리’라 정의하였으므로 그 의미에 따라 ‘법’에서 ‘민사법’으로 분류하였

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은 충분히 대분류로는 ‘지리/지역/관광’, 중분류로는 ‘지적/지리정보’의 성격을 갖는 용어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조선 성종의 명에 따라 노사신 등이 조선 각 도의 지리와 풍속 등을 담아 편찬한 지리서’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역사/고고학’에서 ‘한국사’로 분류하였다.

문화재 용어집에서 보이는 ‘회랑(回廊)’은 절 등의 옛 건물에서 보이는 시설 또는 부분을 말하므로 ‘역사/고고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한쪽에는 벽면이 있고 다른 쪽에는 길고 좁은 개방된 복도형의 지붕이 있는 건물’로 정의되어 있어 건물의 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꼭 문화재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교통’에서 ‘시설물설계/해석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정비 대상 어휘 모두를 대상으로 분야를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 분야 전문가에게 분야 분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 사항을 받았다.

#### (1) 분야 분류 관련 감수 위원 의견

용어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정의문
	대분류	중분류	감수 내용	
하마비	역사/고고학	동양사	한국사	말 탄 사람은 그 앞에서부터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비석. 공궤, 종묘, 문묘 등 앞에 세웠다.
코보	정보/통신	정보이론	대분류: 경제/경영 중분류: 경영정보/e-비즈니스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KOTRA)에서 운영하는 순수 거래 알선 사이트.
재해^대책^기본법		분야별전문법	재해대책기본법은 일 본의 법령 명칭임. 한 국의 유사입법으로 재 난안전관리기본법이 있음. 한국법은 법 분 류에 따르면 공법/행정 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정해진 법률. 이 중 방 재에 관해서는 국가, 지방 공공 단체, 기타 공공 기 관은 각각 책임을 명백히 하여 방재 계획의 작성,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

				책, 재해 복구 및 방재를 위한 재정 금융 조치 등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치/행정	공공정책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개선을 위한 목적이므로 주택복지에 해당하므로 공공정책보다는 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이 적절해 보임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예로 제시한 것 중에서 ‘하마비’의 경우 본 연구진에서는 ‘하마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의 분야는 ‘동양사’로 판단함이 적절하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감수 위원은 한국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에 정의문이 제시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용어가 쓰이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대 원칙에 따라서 다시금 판단을 하였다.

이 말은 정의문에 ‘종묘’, ‘문묘’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서울에 있는 시설물로 이해함이 자연스럽다. 또한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지방의 향교 등을 가 보면 어렵지 않게 하마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분야를 수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코보’의 경우는 현재의 정의문이 무역 거래와 관련되는 것을 중시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음이 명확하여 전면적으로 분류를 수정하였다. 이에 감수 위원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대분류를 ‘경제/경영’으로 수정하고 중분류를 ‘경영정보/e-비즈니스’로 수정을 하였다.

이어서 ‘재해^대책^기본법’은 ‘분야별 전문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 법 분류에 따르면 ‘공법/행정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그래서 ‘헌법/행정법’으로 수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라는 점에서 감수 위원의 지적을 받고 보니 법에 명시된 어떤 것으로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형태의 주택이 등장하게 된 것이 정책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는 것이 언중들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인식과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형태의 주택이 이른바 주택 복지에 해당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용어는 기존에 작성했던 원안대로 ‘공공정책’으로 중분류를 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였다.

전문 분야 분류를 하는 것은 어떤 용어가 하나의 의미, 하나의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바가 많아 쉽지 않다.

#### 4.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정의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작업상의 기본 원칙은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을 경우에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따르고 2장에서 제시한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의문 정비를 수행하였다.

이번 과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A. 또는 B.”와 같이 뜻풀이가 된 것들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A. 또는 B.”와 같은 방식으로 뜻풀이가 된 것들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코치(coach)’를 보면 “「2」 『체육』 운동 경기의 정신·기술·전술 따위를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훈련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일’과 ‘~사람’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정의로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상한다.”는 이번 정비 과업의 기본 지침에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뜻풀이를 분리하여 별개의 의미로 기술을 하였다. 다음의 예는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10〉 “~A. 또는 B.” 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표제어	기존 정의문 방식	정의문 분리
엠엘더블유엘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여 얻은, 평균 수위보다 낮은 모든 수위의 평균값. 또는 수년간의 저수위를 평균한 값. 평균 저수위이라고도 한다.	1.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여 얻은, 평균 수위보다 낮은 모든 수위의 평균값. 평균 저수위이라고도 한다.
		2. 수년간의 저수위를 평균한 값. 평균 저수위이라고도 한다.
아르	원이나 구의 중심에서 그 원둘레 또는 구면상(球面上)의 한 점에 이르는 선분. 또는 그 선분의 길이. 반지름.	1. 원이나 구의 중심에서 그 원둘레 또는 구면상(球面上)의 한 점에 이르는 선분. 반지름.
		2. 원이나 구의 중심에서 그 원둘레 또는 구면상(球面上)의 한 점에 이르는 선분의 길이. 반지름.
지거법	지거를 측정하여 실내에서 도화작업을 하는 측량 방법. 또는 측량 지역 내의 면적을 구할 때 측선의 양단에 지거선을 긋고 경계선과 측선의 두 지거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간단한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세분하여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	1. 지거를 측정하여 실내에서 도화작업을 하는 측량 방법.
		2. 측량 지역 내의 면적을 구할 때 측선의 양단에 지거선을 긋고 경계선과 측선의 두 지거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간단한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세분하여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

본 연구진에서는 전문 분야 감수 위원, 국어 및 사전 분야 감수 위원에게 요청을 하여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다. 이를 연구진 내부의 논의를 통하여 정비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 1) 전문 분야 감수 위원의 감수 내용 반영

### (1) 정의문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

용어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시각^장치	1. <한국어> 인공위성은 매 초 수 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1M간에 수 mm”이동하게 된다. 레이저 측거에서는 위성의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의 거리를 “측정하려면 그	정의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특히 큰 “1M간에 수 mm”로 표시한 부분). GPS

	<p>측거 정도가 m되려면” 시각의 정도가 1<math>\mu</math>s 이내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하여 레이저 측거 장치의 시각 장치는 원자 주파수 표준 같은 안정한 원진기에서 구동되어야 하므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각계 UTC [협정세계시]로 정확하게 동기될 필요가 있다. 시각의 동기는 로란 C 전파 또는 GPS 위성의 전파 신호를 수신하는 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간단히 소요의 정도를” 실행하게 된다.</p> <p>출처 - 기타 : 지적및공간정보용어해설집(한국국토정보공사)</p>	<p>위성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를 의미함</p>
--	---	----------------------------

감수 위원의 지적 내용 중에는 현재의 정의문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시각^장치’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것은 GPS 위성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해 왔다.

이에 지적 사항을 대폭 받아들여 표제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수 내용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GPS 위성에 설치된 시계를 주된 의미로 제시하고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다. 그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감수 이전	감수 내용의 반영 결과
<p>인공위성은 매 초 수 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1M간에 수 mm이동하게 된다. 레이저 측거에서는 위성의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의 거리를 측정하려면 그 측거 정도가 m되려면 시각의 정도가 1<math>\mu</math>s 이내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하여 레이저 측거 장치의 시각 장치는 원자 주파수 표준 같은 안정한 원진기에서 구동되어야 하므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각계 UTC [협정세계시]로 정확하게 동기될 필요가 있다. 시각의 동기는 로란 C 전파 또는 GPS 위성의 전파 신호를 수신하는 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간단히 소요의 정도를 실행하게 된다.</p> <p>출처 - 기타 : 지적및공간정보용어해설집(한국국토정보공사)</p>	<p>GPS 위성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를 가리키는 말. 주로 GPS 타이밍 수신기, GPS 타이밍 동기와 같은 용어로도 사용된다.</p> <p>출처 - 기타 : 지적및공간정보용어해설집(한국국토정보공사)</p>

## (2) 정의문의 내용이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용어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작물^잔류성^농약	1. <한국어>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 중에서 잔류하여 보건 사회부 장관이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 다만, 토양 잔류성 농약의 분류 기준에 속하는 농약은 제외한다. 출처 - 기타 :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정부부처가 예전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장으로 정부부처명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적^위원회	1. <한국어> 지적 관련 업무를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토지 등록 업무의 개선 및 지적 측량 기술의 개발 연구, ② 지적 기술자 또는 지적 기능자의 양성 방안, ③ 대통령이 정하는 지적 기술자 및 지적 기능자의 자격 검정, ④ 지적 기술자 및 지적 기능자의 징계, ⑤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를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출처 - 기타 : 지적및공간정보용어해설집(한국국토정보공사)	행정자치부는 현재 해산된 조직이므로 확인이 필요함. 현재 행정안전부임. 그러나 조 회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확인됨.

감수 내용 중에는 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다. 핵심은 용어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관한 것이 지금의 현실에 부합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은 공공용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감수 결과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었다.

이에 ‘작물^잔류성^농약’은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 중에서 잔류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농촌 진흥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 다만, 토양 잔류성 농약의 분류 기준에 속하는 농약은 제외한다.”와 같이 수정하였다. 즉 협의 주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업무를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행정안전

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토지 등록 업무의 개선 및 지적 측량 기술의 개발 연구, ② 지적 기술자 또는 지적 기능자의 양성 방안, ③ 대통령이 정하는 지적 기술자 및 지적 기능자의 자격 검정, ④ 지적 기술자 및 지적 기능자의 징계, ⑤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를 심의하거나 의결한다.”와 같이 수정을 하였다. 즉 현재의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로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 (3) 정의문이 세부 분야에만 한정되는 경우

용어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내용
급성^독성^시험	1. <한국어> 실험용 쥐를 써서 경구 투여 후 원칙으로 1주간의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50% 치사량(LD50)값을 구하는 시험. 만성 독성 시험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확인이나, 공장 배수 또는 특정 물질을 대상으로 한 어류 쪽의 영향 등의 검토에 쓰이고 있다. 출처 - 기타 :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 정의는 설치류 경구급성 독성시험의 정의입니다.
저독성	1. <한국어> 농약 등에서 급성 독성이 낮은 독성. 급성 독성의 강약은 발암성, 최기형성, 변이원성의 유무나 강약과 관계가 없다. 저독성 유기인제라 해도 시력 저하 등의 만성 독성이나 누발성 신경 독성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출처 - 기타 :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의문은 농약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독성학에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전도성^고분자	1. <한국어>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고분자로서, 태양전지 개발에 핵심이 되는 기능성 고분자. 출처 - 기타 :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고분자 (태양전지 개발에 핵심이 되는 기능성 고분자 -> 삭제, 정의문으로서 부적합)

감수 의견 가운데에는 현재의 정의가 용어의 의미를 특정 분야 또는 영역의 의미만을 싣고 있어서 보다 일반적인 차원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감수 의견에 대하여 연구진에서는 공공용어 사용자들이 흔히 접하는 의미가 현재와 같은 특정 분야나 영역에 국한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의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말샘의 정의를 참고하여 감수 내용의 취지에 따라 기구축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급성<sup>^</sup>독성<sup>^</sup>시험’의 정의문은 “화학 물질의 1회 투여 또는 단시간 반복 투여에 의하여 단기간에 급격하게 생기는 생체 장애를 조사하는 시험. 일반적으로 실험용 쥐에게 경구 투여를 한 후에 1주간 관찰하여 50% 치사량 따위를 구한다. 공장 폐수 내 물질과 식품 첨가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와 같이 일반적인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실험용 쥐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감수 내용의 취지와 기구축 자료의 정의를 모두 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도성<sup>^</sup>고분자’는 감수 내용에 따라서 태양 전지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고분자.”로 간단히 정의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 (4) 정의문의 내용이 상위 범주인 경우

용어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상사 <sup>^</sup> 중재	1. <한국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 출처 - 기타 : 무역보험용어집(한국무역보험공사)	정의문은 상사 중재의 정의라기 보다는 중재의 개념에 가까움. 중재법 제3조 제1호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있고, 원래 중재판정은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 결정에 복종’할 수 밖에 없음.

이 감수 내용은 현재의 정의가 ‘상사^중재’에 관한 정의라기보다는 ‘중재’의 정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재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에 ‘상사’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정의를 수정하였다.

#### (5) 정의문에 사용된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용어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절리	1. <한국어> 암석에서 보이는 규칙적으로 갈라진 금 가운데 양반(兩盤)이 금의 방향으로 움직여 생긴 것을 제외한 금. 화성암이 냉각되어 수축할 때나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에 암체(岩體) 내부에 응력이 작용하여 그 결과로 생긴 금이다. 출처 - 기타 :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양반”이라는 용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수 내용 중에서는 메타언어로 쓰인 용어가 어려운 말에 해당하여 공공용어의 정의문으로 쓰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정의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로 작업 내용은 “암석에서 볼 수 있는 나란한 결. 단층과 달리 결을 따라 어긋나지 않는다. 화성암이 냉각되어 수축할 때나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에 암체(岩體) 내부에 응력이 작용하여 그 결과로 생긴 금이다.”와 같이 제시하였다.

## (7) 정의문에 담긴 내용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용어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내용
큰땡기	1. <한국어> 활옷을 입을 때 뒤에 다는 땡 땡기. 출처 - 기타 : 한국문화재용어(한국국제 교류재단)	활옷 등 혼례복을 입고 족두리 나 화관을 쓰고 뒤에 길게 늘어 사용
상투	1. <한국어> 성인 남자가 머리털을 위로 끌어 올려 휘휘 틀어 짠 머리. 상투를 틀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대접을 받 지 못하였다. 출처 - 기타 : 한국문화재용어(한국국제 교류재단)	머리카락을 모두 올려 빗어 정 수리 위에서 틀어 감아 맨 머리 모양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투)]

정의문의 담긴 내용 중에는 ‘큰땡기’와 같이 정보가 보충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감수 의견과 ‘상투’와 같이 제시된 정보를 줄여서 용어에 해당하는 의미  
만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즉 적정 정보량이 담기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감수 취지를 반영하여 큰땡기는 “활옷 등 혼례복을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뒤에 길게 늘어 다는 땡 땡기.”로 수정하였고, ‘상투’는 “머리카락  
을 모두 올려 빗어 정수리 위에서 틀어 감아 맨 머리모양.”과 같이 수정하였  
다. 이렇게 하여 정의문에 적정한 정보가 담기도록 수정하였다.

## 2) 국어 및 사전 전문가의 감수 내용 반영

### (1) 정의문의 문체 통일

표제어	정의문	
	연구진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주택^사업자^보 증	주택 사업자가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 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 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것	바로 위에는 ‘보증하는 일’, 여기에 서는 ‘보증하는 것’ - 문체를 통일 하는 방안

소음성^난청	오랜 기간 강한 소음에 시달림으로써 일어나는 난청. 처음에는 4,000헤르츠 정도의 고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차츰 보통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종류의 소리도 듣기 어렵게 된다.	4,000헤르츠 --> 4,000Hz (다른 정의문과의 통일 필요)
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 함양·보건 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 휴양 시설과 그 토지가 포함된다.	굳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의문임. 다른 항목에서는 이 정도는 모두 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있음.

‘주택^사업자^보증’은 이보다 앞서서 기술된 항목인 ‘사업주^보증’이 같은 ‘보증’으로 끝나는 말인데도 “근로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고자 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보증하는 일.”로 되어 있어 정의문 표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문체의 통일성을 생각하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말샘』에서도 ‘보증’으로 끝나는 말들은 ‘~일.’, ‘~보증.’, ‘~서비스’, ‘~시스템.’ 등과 같이 정의문을 끝을 맺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우리말샘』의 처리 방식을 참고하여 이곳에서도 ‘보증’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소음성^난청’의 경우는 정의문 속의 단위를 한글로 쓰지 말고 전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을 고려하여 ‘Hz’와 같이 표기함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되 공공용어 정비 목적을 고려하면 m, km, g, kg 등과 비교하면 Hz의 사용은 낯선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글 표기 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부분은 “4,000헤르츠(Hz)”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현재의 정의문이 부가 정보 형식으로 제시한 것을 언어적 정의문에 함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고려해 볼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가 정보가 휴양림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라 하기는 어렵다. 이에 해당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대로 두었다.



## (2) 중복 및 잉여 표현

표제어	정의문	
	연구진 작업 내용	감수 내용
호족반	상다리 모양이 호랑이 다리 모양을 한 소반. 호랑이 다리 소반이라고도 한다.	정의문은 되도록 간결한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볼 때, ‘~ 모양이 ~모양을 하다’라는 표현이 잉여적으로 생각됨.
팔작	지붕 아랫부분은 네 귀에 추녀를 엮은 모임지붕처럼 되고, 지붕 윗부분은 박공이 달린 지붕.	‘지붕’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여서 다음과 같이 고치면 어떨까 함: 아랫부분은 네 귀에 추녀를 엮은 모임지붕처럼 생겼고, 윗부분은 박공이 달린 지붕.

다음으로 표현이 군더더기가 없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감수 내용이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호족반’과 ‘팔작’을 들 수 있는데, 이들에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 표현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감수 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호족반’ 경우는 “상다리 모양이 호랑이 다리처럼 생긴 소반. 호랑이 다리 소반이라고도 한다.”와 같이 수정하여 ‘모양’이라는 단어가 중복해서 쓰이지 않도록 다듬었다. 이어서 ‘팔작’의 경우는 “아랫부분은 네 귀에 추녀를 엮은 모임지붕처럼 생겼고, 윗부분은 박공이 달린 지붕. 여덟 팔자(八)의 모양을 닮아서 이름이 붙여졌다.”와 같이 수정하여 ‘지붕’의 반복 사용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겸하여 부가 정보도 제시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 비문

표제어	정의문	
	연구진 작업 내용	감수 내용
빗물^관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 침투 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 저류 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 이용 시설 등 빗물과 관련된	~관련된 모든 시설을 총칭 : ‘총칭’과 같은 명사로 끝나는 예는 대체로 ‘~의 총칭’임. 여기서는 ‘~을 총칭’이라고 되어 있어 어색함.

	모든 시설을 총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현재 정의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정보만 있음. 어떤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없음.
화전	주로 산간 지대에서 산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자리에 농사를 지어 먹던 일. 또는 그 밭.	‘먹던’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음. 또한 ‘-던’ 대신 ‘-는’으로 쓰는 것이 적절할 듯함.
적하^추적^시스템	산업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처리를 배출에서 처분까지 확실히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즉, 유해 폐기물의 배출 사업자가 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경우 유해 폐기물의 처분 등을 운반 위탁자, 처분 위탁자에게 적하 목록을 교부하여 정보 처리 센터로 하여금 처분하기까지 추적하고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유해 폐기물의 처분 등을 운반 위탁자, 처분 위탁자에게 적하 목록을 교부하여” 부분이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비문)

감수 위원의 감수 내용 중에는 정의문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들이 수적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것들은 문장의 구조만 살짝 바꾼다든지 조사와 어미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 4.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구축 사용 예시는 국립국어원의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사용 예시에 인명, 회사명, 지역명 등 고유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O(영문 대문자)’로 바꾸어 익명 처리했다.

또한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썼다. 누리집이나 보도 자료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마지막에 제시했다.

## □ 사용 예시 내용 및 출처 관련 정보의 정비 내용

- 띄어쓰기를 규범에 맞게 정비하되, 특히 사용 예시 속의 표제어는 반드시 표제어의 띄어쓰기와 맞추도록 하였음.
- 표기법은 맞춤법에 맞추도록 정비하여 ‘맞히다’를 써야 할 자리에 ‘맞추다’를 쓴 것 등을 정비하였음.
- 문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수정은 하지 않음.
- 익명 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예문과 제목 모두에 O(영문 대문자)를 음절의 개수만큼 표시하여 익명 처리를 함.
- 제시 정보가 이어질 때에는 반드시 ,(쉼표)로 경계를 구분하며, ,(쉼표) 다음에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하며, 낱자 뒤에도 반드시 ,(쉼표)를 표시함.

예) 금강일보, 2020. 12. 13. 태안군, 내년 벼 종자 확보 완료 ‘풍년농사 이상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92>

→ 금강일보, 2020. 12. 13., OO군, 내년 벼 종자 확보 완료 ‘풍년농사 이상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92>

- 낱자 표시에서 십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 ‘0’은 모두 삭제함.

예) 2021. 07. 04. → 2021. 7. 4.

- 이 이외에 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에 명시된 <사용 예시 출처 제시 순서>에 따라 출처 정보가 일관되게 제공되도록 함.

이와 같은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종합 검토 작업을 하면서 다시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진에서 검색을 통하여 찾아 제시한 사용 예시에 잘못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전문 분야 전문가, 국어 및 사전 전문가에게 감수를 요청하였고, 그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과업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고 반영하였다.

(1) 분야 분류에 적절하지 않은 예시가 제시된 경우

용어	사용 예시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코드^분할^다중^접속	1. 세계 최초로 이동 통신에 사용되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을 적용해 분자 물질의 종류를 알아냈다. 출처 -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1. 1. 18.,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활용 알츠하이머 병 조기진단,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101161737322259">https://www.fnnews.com/news/202101161737322259</a>	△ (이동통신 분야의 사례가 더 좋겠음)	여러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각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하여 전송하고 수신 시에는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는 접속 방식. 아날로그 방식보다 수용 용량이 크고 통화 품질도 우수하다.
존속하다	1. 원조선을 빼놓고는 가장 먼저 국가로 등장했고, 무려 900년 가까이 존속했다. 출처 - 기사 : 한국경제신문, 2011. 11. 1.,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고구려·신라·백제에 가야·부여 더한 5국시대로 봐야, 900년 가까이 존속한 부여...많은 국가들이 계승해, <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2926131">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2926131</a>	존속은 상속법이나 형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니 예시에도 그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다.

감수 내용에서는 전문 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쓰임을 보이는 예시가 제시되었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다. 위에서 제시한 두 예가 이에 해당한다.

‘코드^분할^다중^접속’은 현재 대분류 분야는 ‘정보/통신’이 중분류 분야는 ‘이동통신’에 해당하는 용어이므로 사용 예시도 이 분야의 쓰임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다. 이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시가 이동 통신에 사용되는 코드 방식임을 드러내고 있고 ‘코드 분할 다중 접속’에 ‘CDMA’가 병기되어 있는 예로 정보의 충실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분야의 예로 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존속하다’는 대분류는 ‘법’이고 중분류는 ‘법학일반’인데 현재의 예시는 역

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에 적합하게 법과 관련이 될 만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000000)는 존속하고 분할 신설 회사(00000000000)는 비상장 법인이 된다.”와 같은 예로 교체하였다.

## (2) 정의문의 내용에 걸맞지 않은 예시가 사용된 경우

용어	정의문	사용 예시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유기 <sup>^</sup> 유허 <sup>^</sup> 살균제	농업용 살균제의 하나. 살균 작용이 뛰어나 과실나무, 야채의 병충을 억제하거나 씨앗을 소독하는 데 쓴다. 무기 살균제에 비하여 약해(藥害)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1. 양파와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유허 살균제는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데 도움을 주고,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 출처 - 기사 : 코리아헤럴드, 2016.6.17. 당신이 몰랐던 양파 활용법 11가지. <a href="http://news.koreaherald.com/view.php?ud=20160617000514&amp;md=20160620003648_BL&amp;kr=1">http://news.koreaherald.com/view.php?ud=20160617000514&amp;md=20160620003648_BL&amp;kr=1</a>	살균제는 양파와 마늘의 내인성 물질이 아니라서 사용 예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수 위원의 감수 내용 중에는 정의문과 어울리지 않는 사용 예시의 제시를 지적한 내용이 있었다. 그 예로 ‘유기<sup>^</sup>유허<sup>^</sup>살균제’를 들 수 있다. 이 말의 정의는 농업용 살균제에 해당하는데, 사용 예시는 정의와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 예는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용 예시에서 삭제하였다.

## 4.6. 관련어 구축

관련어 구축은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정비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한 결과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의 ‘거머리<sup>^</sup>장식’은 ‘감잡이’와 서로 섞여 쓰일 수 있는 말인데, 이 둘 중에 ‘감잡이’가 표준 전문 용어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해당 전문 분

야에서 합의한 표준 용어를 반영한 것이다.

표제어	관련어	비고
거머리^장식	감잡이	표준 전문용어

다음으로 대상 용어와 형태의 일치도가 높고 개념(분야, 원어, 의미 등)이 같은 일치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이것은 맥락에 따라서 ‘제도’란 말이 빠져도 충분히 ‘선분양^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표제어	관련어	비고
선분양	선분양^제도	일치어

이어서 형태는 다르나 의미가 같은 용어인 동의어는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외래어와 비외래어 관계인 경우가 많다.

표제어	관련어	비고
에이치더블유엘	고수위	동의어
아이에이	교각	동의어

다음으로 외래어 등 어려운 대상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은 용어는 다듬은 말로 그 관계를 표시하였다.

표제어	관련어	비고
횡구식	앞트기식	다듬은 말

그리고 상위어, 하위어, 계열어 등 대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용어는 참고어로 분류하였다.

표제어	관련어	비고
실효되다	실효하다	참고어

대상 용어의 관련 용어로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어로 관계를 표

시하였다.

표제어	관련어	비고
목곽묘	나무곽무덤	북한어

이처럼 정비한 관련어 정보가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감수를 받았다. 그 결과 관련어 정비에 관하여 눈에 띄는 바는 지적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대역어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었다. 이에 이번 작업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를 수정하였다.

### (1) 대역어의 오타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자연^발화	1. <영어> spontaneous combustion	오타 -> spontaneous combustion

감수 내용 중에는 대역어 표기에서 보이는 오타를 바로잡아야 함을 지적해 준 것들이 있다. 이 지적 사항은 바로 받아들여 표기를 수정하였다.

### (2) 구성 요소의 누락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접촉^분해^공정	1. <영어> catalytic cracking	1. <영어> catalytic cracking process

감수 내용 중에는 대역어에 구성 요소가 일부 누락된 것을 보완해야 함을 보인 것들이 있었다. 위의 ‘접촉^분해^공정’에서 볼 수 있듯이 기구축 자료에는 ‘공정’에 해당하는 대역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감수 위원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process’를 추가하였다.

### (3) 대역어의 변경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작업 내용	감수 내용
유용성^염료	1. <영어> oil color 2. <영어> solvent dye	1. <영어> oil-soluble dye

감수 내용 중에는 기구축 자료에서 제시된 대역어와는 다른 형태의 대역어를 제시해 준 경우가 있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용성^염료’의 대역어는 기구축 자료와는 달리 ‘oil-soluble dye’로 감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백과사전이나 전문 분야 사전을 검색하여 본 결과 이 말이 유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감수 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oil color’와 ‘solvent dye’를 삭제하고 ‘oil-soluble dye’로 대체하였다.



## 5. 결론

이 연구는 그간 여러 곳에서 구축하여 유통되어 온 분야별 공공용어 자료집에 실린 공공용어를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언중들의 공공용어의 접근과 이해에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여 공공용어 사용에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정비 대상 후보가 된 용어는 『무역 보험 용어집』, 『보건 의료 인 국가시험 용어』, 『한국 문화재 용어』, 『주택금융용어집』,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 『지적 및 공간정보 용어해설집』의 모든 용어와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에 실린 용어 중 19,965개였다. 이 가운데 언중들의 언어생활과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선별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모두 11,000개를 정비 대상 어휘로 선정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용어들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에 따라 ‘표제어’, ‘원어’, ‘정의문’, ‘사용 예시’, ‘전문 분야’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고, 각 부분의 정보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 보완하였다. 이처럼 국립국어원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이 지침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연구진 내에서 논의하여 내부 지침을 만들어 보조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정비 작업은 『공공용어 구축 시스템』(<http://termsswork.korean.go.kr>)에서 수행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1차로 연구 보조원들에게 참여율에 따라 용어를 배분하여 정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을 2차로 시스템 내에서 공동 연구원에게 배정하여 검토와 보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연구 책임자가 검토와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 감수 위원에게 검토를 받고 감수 내용을 연구진 내에서 논의하여 적절히 정비 내용에 반영하였다.

감수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감수 작업은 시스템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스템에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엑셀 파일에 감수 위원이 살핀 바를 표시하여 전달하고 이것은 연구진에서 살펴보고 해당 용어를 찾아 보완하는 형태로 감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가장 먼저 한 감수는 전문 분야 감수 위원들에게 내용에 관한 감수를 받는 것이었다. 이 감수는 표제어, 원어, 전문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어에 관한 것으로 실시되었다. 감수 결과 주로 표제어, 전문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이것을 연구진 내에서 판단하여 적절히 반영하였다.

이어서 실시한 감수는 표제어에 대응하는 원어, 정의문과 사용 예시에 원어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이 원어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감수에는 한자어 전문가와 영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 감수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한자 정보를 상당수 바로잡을 수 있었으며, 영어의 철자 오류, 대소문자의 사용, 사용된 어휘의 부적절성 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비 결과를 국어학 및 국어사전의 관점에서 표현의 방식, 표현 내용, 정보 제시 방법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에 관한 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하여 정의문의 문장 구조, 관련어 또는 계열어와의 통일성을 고려한 정의문의 제시, 문장의 문법성 여부 및 자연스러움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부분 수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비 작업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두 10,222개 항목이 정비되어 국립국어원에 제출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문화재 용어』가 가장 많은 2,703개 항목이 정비되었고,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가 2,578개 항목으로 그다음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무역 보험 용어집』이 2,069개 항목, 『지적 공간 정보 용어 해설집』이 1,734개 항목, 『토지이용 관련 쉬운 용어사전』이 629개 항목,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용어』가 329개 항목, 『주택금융용어집』이 180개 항목이 정비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용어들을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경제/경영(1,952개) > ② 역사/고고학(1,473개) > ③ 환경(981개) > ④ 건설/교통(871개) > ⑤ 지리/지역(676개) > ⑥ 화학(437개) > ⑦ 문화/예술(398개) > ⑧ 지구과학(390개) > ⑨ 생활(343개) > ⑩ 정치/행정(329개) 등이 상위 분야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를 통하여 이번 정비 과업을 수행한 결과 위 분야에 해당하는 용어들에 관한 내용들이 언중들의 언어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업에게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라면 사용 예시를 찾아 제시하는 데

에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기구축 자료집들에서는 사용 예시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정비 대상 용어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사용 예시를 찾아 보완하였다. 어휘의 이해와 활용에서 사용 예시가 지닌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 예시의 수집과 확보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문 기사, 정부의 누리집, 학술 논문 또는 서적, 정부의 보고서 또는 보도 자료 등에서 사용 예시를 찾아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9,069개의 용어에 해당하는 사용 예시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정비 완료된 용어 항목 수 대비 88.72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구 책임자: 이준환(전남대학교)

공동 연구원: 조재형(전남대학교), 백승주(전남대학교), 조경순(전남대학교),  
유하라(성균관대학교), 임태운(남부대학교), 최지영(전남대학교),  
이수진(전남대학교), 최 윤(강원대학교)

연구 보조원: 최옥정(전남대학교), 김다솔(전남대학교), 강은진(전남대학교),  
이유미(전남대학교), 고상미(전남대학교), 김신혜(전남대학교),  
하현정(전남대학교), 이지성(전남대학교), 오지수(전남대학교),  
미즈카이 유카리(전남대학교)

담당 연구원: 박주화(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1년 12월 21일

발행일: 2021년 12월 21일

---

---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분야별 공공용어 정비’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